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9호 [무게 제24377호] 주제 102(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7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을 돌아보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이 마감 단계에 이른 교직원청사, 연구생청사, 강습소, 회관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마무리를 잘하는데서 나서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보살핌속에서 창립되고 강화발전되어온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군사일군양성의

중심기지인 김정일군사연구원을 일떠세우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셨다. 그이께서는 력사가 있고 권위가 있는 세계적인 대학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품격에 맞게 김정일군사연구원의 모든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대공보》, 인터넷홈페이지들인 보도망, 길림망, 동북망,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포방울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인 보도

망, 동북망,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꾸리고있는 만경봉체육단의 축구훈련장을 돌아보신 소식도 게재하였다. 중국의 《길림신문》, 《속속강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이탈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 및 연대성협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대용사들의 묘를 찾으신 소식을 실었다. 중국, 이탈리아의 신문,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

본사기자

인류자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회고위원회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에 즈음하여 11월과 17일 쿠웨이트민족사업집에서는 회고모임이, 나이지리아 연방수도령토성 예술 및 문화사사회에서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여져 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들에는 쿠웨이트 김정일대원수님 회고위원회와 쿠웨이트민족사업집, 쿠웨이트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 연방수도령토성 예술 및 문화사사회 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쿠웨이트 김정일대원수님 회고위원회 위원장 유세프 알 아미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에게 대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하여 적극 소개전해나갈것이다. 김정일대원수각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경의를 드린다. 아울러 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 원수각하께서 언제나 건강하시어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길 충심으로 축원한다. 나이지리아 연방수도령토성 예술 및 문화사사회 국장과 부국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류자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격찬하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반드시 일떠세우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결성식은 파키스탄의 여러 정당, 단체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서기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희세의 위인이며 사회주의위업과 평화와 정의의 수호자이시라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 인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

을 빛내신데 대하여 칭송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전국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 상원 의원 아마르 지트 말 호트라가, 부위원장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 사히다 위자라트가 선출되었다. 전국위원회는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원수님 회고위원회가 14일 방글라데시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글라데시-조선친선 및 연대성위원회 위원장 야. 하. 아르 라쉬드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가 18일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웨. 아. 예브 로브가 선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의 친솔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와 출판선정활동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 로씨야 까렐리아위원회가 18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까렐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빅토르 예고르브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발표 19돐에 즈음하여

영국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발표 19돐에 즈음하여 영국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이미 땀했다고 떠들던 포악한 계급주의자들의 악담을 짓몽개버리고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뚜렷이 밝혔다. 또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사회주의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의 꾀변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위황한 슬기의 앞길을 밝혀주시었다. 그의 저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오늘날도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본사기자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본때로 더 높고, 더 빨리 비약하자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간다

재령광산에서

재령광산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현존생산태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바르토처리와 철광석운반에 많이 드는 연유소비량을 대폭 줄일 목적으로 진행하는 스키프로션선장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필요한 짐목들과 부대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많은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존철광석운반을 위한 스키프로션이 보강되고 그 길이는 1.3배로 늘어나 재령광산의 생산을 높일수 있는 확실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광산에서는 성과를 확대하여 바르토처리를 위한 스키프로션반동력확장 및 현대화실현에 달려나갔다. 여러 단위의 전투원들은 빠른 기간에 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해 하루전투목표를 높이 정하고 두류, 세류씩 일감을 맡아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의 헌신 투쟁으로 몇달 안되는 기간에 방대한 량의 암반굴착과 로반작업, 메추반침목제작 및 설치, 권양장치의 전속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났다. 운반능력이거나 현대화수준에서 자랑할만한 바르토처리를 위한 스키프로션

연장 및 현대화공정에서는 동력선공사와 조종계통공사, 권양람공사기 체계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철광석과 바르토운반을 위한 스키프로션연장 및 현대화공사로 연계 되는 경제성적은 크다. 현존생산태도를 최대한 효과 있게 리용한것으로 하여 공사가 일정을 앞당겨 추진되고 있다. 대형자동차에 의한 운반작업이증이 많아져 지난 시기보다 많은 량의 연유가 되어, 부속품들을 쓰지 않게 되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실리적이다. 사별능력확장공사와 화공품 생산공정, 전력공급계통의 과학화, 미광의 제자화실현을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기술자들과 함께 사별공정의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기초적인 과제능력을 2배로 높이며 중대 리용하는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공무기지와 련관된 위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처

리능력이 보다 큰 과제기를 제작설치하였다. 마감단계에 들어선 사별능력확장공사에서는 이곳 광부들이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부대설비설치를 비롯한 여러가지 작업과제들을 추진하고있다. 화공품생산에 새 기술을 받아들이고 전력부하관리의 컴퓨터화실현으로 생산활성화의 전망은 더욱 광망적이다. 얼마전 이곳 기술자들은 심부채굴착에서 능률적인 새로운 화공품을 시험생산하여 발파효율을 크게 높였으며 전력부하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여 같은 전력으로 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릴수 있게 하였다. 광산의 일군들은 생산과정에 나쁜 미광속에서 유용광물을 회수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활성화하며 새 기술을 받아들여 연유 소비를 훨씬 낮추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미광처리공정을 일대세워 그 덕을 보고있는 광산에서는 실리가 큰 연유절약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잔디연구소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자이든 불멸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에서 군민단결의 위력으로 잔디연구소건설을 다그치고있다. 라남지구에서 특색있게 건설되고있는 잔디연구소는 북부지대의 기후조건에 맞는 잔디품종을 육종하여 국외로의 면포를 일신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현장지휘부에서는 잔디연구소건설을 빠른 시일에 끝내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인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한 총동원투쟁을 벌이고있다. 연구소의 기본청사건설을 맡은 인민군인들은 착공의 첫발을 빠른 때로부터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틀동안에 기초과제를 끝내고 기초공구리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으로 락원으로 건설시켜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와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군민단결의 위력으로 잔디연구소건설을 빠른 속도로 내밀고있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에서 현대적인 잔디연구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한 단계 추진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군민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한 총동원투쟁을 앞장서서 벌여나가고있다. 내외부미장작업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도인민위원들과 청년들의 여러 구역들에서 달려온 돌격대원들은 인민군인들의 전투적인 일본놈을 따라배워 내외부미장작업을 벌이면서 나날이 단고있다. 기초공사준비공사와 청진강계

보장해주고있다.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총공사령의 대부담을 해체한 기세로 높이 올려안으로 연구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총동원투쟁을 벌이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500세대 살림집건설 완공

남흥청년 화학련합기업소에서

남흥청년 화학련합기업소에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웠다. 청년장대리를 지나면 드넓은 도로를 따라 일떠선 다층살림집들을 볼수 있다. 7층, 8층, 9층짜리 다층살림집들은 26동에 500세대이다. 하여 짧은 기간에 공업지구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살림집구획이 특색 있게 형성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을 위한 나라입니다.》

집들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그리고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시공은 물론 설치할 건구류의 형태와 재질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높은 수준에서 선택하며 최단기간에 건설공사를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지역갱생기지를 활성화하고 원료, 자체보장을 앞세워 많은 량의 세멘트와 철강물자를 자체로 해결하였다. 또한 공사가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추막치기와 블로크벽기를 선행시켜 살림집건설공사를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낼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여 성과를 확대하였다. 여러 호동들을 동시에 타고있는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이고 체계적인 전투를 벌여 기초굴착과 기초공구리치기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었다. 이어 골조공사가 진입된 건설자들은 여러 가지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공

향강도립관리국아래 립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통나무생산이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동원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하겠습디다.》

향강도립관리국아래 립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통나무생산이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동원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하겠습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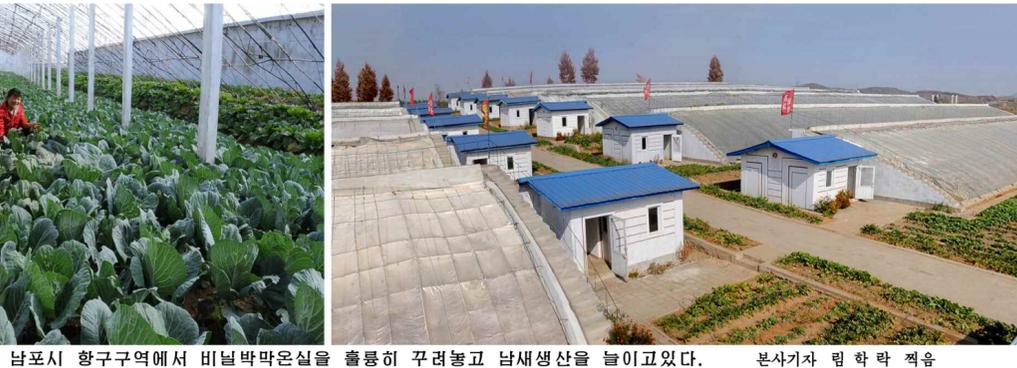
향강도립관리국아래 립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통나무생산이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동원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하겠습디다.》

향강도립관리국아래 립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통나무생산이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동원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하겠습디다.》

향강도립관리국아래 립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통나무생산이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동원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하겠습디다.》

본사기자

전성삼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비닐박막온실을 훌륭히 꾸려놓고 남새생산을 늘리고있다. 본사기자 립 학락 찍음

조선녀성의 존엄과 영광을 빛내여준 위대한 품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었던 김득관녀성이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인류가 장구한 세월 애래 해결을 갈구 해 온 인간문제에는 여성문제도 있다. 인류역사와 사회발전을 위해 거대한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출몰 예측과 구속, 천대 및 멸시의 대상으로 되어온 여성, 하지만 오늘 우리 녀성들은 자기 운명과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있다.

부역대기로부터 나라의 첫 녀성대원으로

《사회!》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역사적인 북조선인민회의 제 1차회의장에 언연을 요청하는 한 녀성의 아무진 소리가 울렸다. 보고가 끝난 다음 도시풍의 한 사나이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최근에 진행되는 민주개혁에 대하여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있던 것이다. 너년의 발언에 좌중은 물방울조 운동해 주시게 하였다.

눈중에 가면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평범한 녀성이었다. 해발에 탄 거무스레한 얼굴, 다른 녀성들과 차이를 띠지 않았던 큰 키에 정교하고 정력이 뿜어지는 서글픈 눈매였다. 그가 바로 태권대교로 올라와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운 김득관녀성이었다. 그해 장내에 우렁우렁한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이 울리었다.

《녀성들아, 앉으시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더 들어봅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양같은 미소를 그에게 보내시며 손짓하셨다. 영거주축하여 말을 중단하였던 그녀는 귀가 맞지 않는 소리를 다시 늘어놓았다. 저자는 조반식의 출애굽하는 속삭임과 동시에 여기까지서 태권대교의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리었다.

《저를 잃어섰던 녀성대원동무가 이 야기하시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대로 득관녀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제에 쫓겨나온 나라를 찾아온 신적정영을 김일성장군님께서 국사를 의논하는 첫 북조선인민회의에서 한 녀성대의 일인자 전체 조선녀성들에게 의사표시의 권리를 우선 행사시킨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반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대표자, 한 평범한 녀성이 국가적인 회의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격려를 받아안고 일어난 김득관녀성에게는 나라를 잃은 땅에 살고 있는, 녀성으로 태어난 최안녀 《리》 때문에 가난에 울고 설음에 절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났다. ...김득관녀성의 어머니는 여덟번째로 태어난 그를 두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지었다. 췌지기를 가난한 살림살이와 남촌녀의 외로운 관습에서 보낸 행복을 기억할 줄 없는 피로였었다.

하여 어머니는 깊은 밤 잠든 아기를 뒤산 나무 밑에 내다버렸다. 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 모성에일진대 살붙이를 버리는 것이 무슨 어머니인가고 반문할수도 있었지만 한 모성애의 가냘픈 온기에 비해 가난은 너무도 엄혹하고도 남촌녀의 핏기는 너무도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온몸을 핏기 발기는 정신적고통에 쓰러졌다. 그런데 다음날 저물녘에 마을의 한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문을 열었다. 엄마를 찾아 버둥거리던 아기는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는지, 불쌍한 생명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에는 또다시 피눈물이 영겨붙었다. 아기를 안고 온 할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하였다. 덥없이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할아버지는 《그러면 뭘손다. 이것도 사람인데...》 하고 말하며 소꿉애에 물들 때까지 고맙게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수건으로 아기의 몸을 닦아주며 《이애를 잘 키우라. 사람이란 뭘손다. 이애가 이따가 울어서 커서 사랑해 될지 알겠나?》 하고 말했다. 하지만 선량한 그 할아버지에게서 어떤 득관의 알밤에 한줄기 동정밖에 있어 줄수 없었던 슬막하는 세월이었다. ... 자리에서 일어난 김득관녀성은 역사앞에, 녀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자각했다.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싶어하는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우리의 민주개혁을 방해하려는 계급적권력들에게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 격정의 말머디들을 쏜게 하였다. ... 왜정때 우리 집은 고향에서 살수 없었던 나라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가을이면

인민회의 부의장이었던 김득관녀성의 일대기는 가정과 사회의 친덕우리로 부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미는 주인공들로 성장한 우리 녀성들의 운명전환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며 녀성문제해결의 빛나는 력사적 창조자이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이다.

부역대기로부터 나라의 첫 녀성대원으로

일본놈들이 다 빼앗아가고 썩은 조반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며 거지처럼 살았다. 해방이 되어 나같은 백성들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 아이들에게 흰쌀밥을 먹이게 되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무엇이 배가 아파 우리 장군님의 토지개혁법령을 비방하는가. 저 사람을 당장 퇴장시키자. ...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전체가 거는 《울소. 울소.》 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회의후시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득관녀성을 부르시어 농민들의 생활형편이랑 물고 시면서 육친의 정 넉치는 담화를 나누셨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다를 인연 맺은 김득관녀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그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깊이 관심하시며 자주도 곁을 곁을 이끌어주시었다.

행복과 보람으로 충만된 생활은 기세차게 앞으로만 흘렀다. 김득관녀성은 태권대교 부녀부장으로서 태권대교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업하게 되었으며 그의 가정에서는 편이여 달달이같은 딸들이 태어났다. 그는 극진한 며느리였고 살뜰한 안해였으며 다정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득관녀성은 한가정의 주부이기 전에 녀성의 참다운 권리를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군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일꾼이었다. 그는 초보적인 공민의 권리지조차도 모르는 녀성들을 깨우치느라 밤낮을 머리에 모고 수십리 밭길을 걷기도 하였고 문맹퇴치 운동의 선구자적역할도 하였으며 알뜰살뜰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군인의 녀성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주제 38 (1949)년 1월 29일 김득관녀성은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제 1기 제 2차 회의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는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다섯번째로 높은 말을 업고 평양으로 향하였다. 애기를 업고 회의에 간다는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그 역시 자식을 위해 온몸을 바쳐가는 어머니인자라 갖 한 자식을 떼어놓을수 없던 무작정 들쳐업고 떠났던 것이다. 평양에 올라오니 근심과 걱정대신 놀라운 일들이 그를 기다렸다. 우선 회의에 참가하는 애기어머니들을 해아려 탁아소가 마련되었었다.

그에 깃든 사연은 뜨거웠다. 최고인민회의 준비사업을 로해하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의원들속에 애기어머니들도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어머니께서는 그들이 근심없이 회의에

조선녀성은 연약하지 않다

세상의 한 문필가는 녀성은 연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쓴적이 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김득관녀성은 연약한 녀성으로부터 강한 녀성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성애때문만이 아니었다. 조국해방전쟁은 인간들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였을뿐아니라 이 나라 녀성들을 강고깊은 사랑의 바다를 안은 준세고 대바른 녀성들로 키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충연설을 받들고 온 나라가 전쟁승리를 위하여 떨쳐나섰던 그때 김득관녀성은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다. 한치의 땅도 목치지 않고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주자니 제일 절린것은 밭갈이였다. 말 못하는 부림소까지도 녀성들을 끌보는지 녀성보급이들에게 었서나했다. 밭갈이시기 벌에 나갔던 김득관녀성은 그런 평평을 또다시 목격하였다. 남자들은 모두 전선에서 나가더니 어떻게 하나 녀성들의 힘으로 부림소들을 취어 잡아야만 하였다. 한참이나 생각을 굴리던 그는 마을마다에서 키끌이 잡고 몸집이 있는 녀성들에게 밭지웃을 일하고 농림부까지 띄워 보판을 잡게 하고는 굵은 소리로 《이랴!》 하며 남작운내를 내도록 하였다. 어떤 모태길속에서 황소들도 점차 녀성들의 손에 길들어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건설한 3.8 락아소에서 아이들을 맡아 돌보도록 다심한 온정을 베풀어주시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속에 탁아소에 딸을 맡긴 그는 이번 회의에서도 아버지수령님앞에서 토론을 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가 토론을 끝자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면저 박수를 보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 동무가 좋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축산을 잘하여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고기와 닭알을 인민군대에 무상으로 보내 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동무는 녀성대원으로 일을 잘하였기때문에 토론을 잘하였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도 아이를 업고 올라왔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일에서 신심이 생기고 어떤 일이든지 꼭 해내야합니다. 다른 대의원동무들도 이 동무의 모범을 따르며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애쓰실념을 잊었다. 득관녀성은 회의후시참이 되었어도 자리에서 일어설념을 잊었다. 그런데 한 일군이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었다. 휴게실에 들어서서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간 일을 많이 하였다고 거듭 치하해주시고는 누군가를 부르시었다. 득관녀성에게 다가온 그는 어서 몸을 재고 하라하셨다. 그는 재단사였다. 난데없이 몸을 재는 바람에 김득관녀성은 어안이 벋벋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거니 하였다. 그러는 득관녀성을 정경에 바라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곁에 있는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이 동무가 한생애 동안 성의를 다하여 양부이라는걸 잊어보았소라고 하시며 어안이 벋벋하여 나라들을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성원으로 보내려고 하니 몸을 맡겨 맡겨 맡겨주고 일체 준비를 갖추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저는 사랑은 그뿐이 아니었다. 김득관녀성의 외국출장준비를 두고 세심하게 마음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녀성들은 조선옷을 입어야 보기가 좋다고 하시며 조선차마지러고다니며 마땅히 해주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안고 압록강물처럼 걷는 그는 그에게서 생각이 없었다. 압록강가대공사에서 승진 이버지생각도 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했던 배를 그러하고 공사장에 나가야 하면 아버지는 끝내 굶주림에 쓰러졌었다. 거기에 싸인 아버지의 시신우에 한줄, 두줄 훑어 버려질 때 김득관녀성은 이제는 아버지가 없구나 하는 슬픔과 서늘함을 눈물로 얼마나 흘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었다. 어머니도 계시었다. 민족적의무와 계급적의무, 성별의 구속에서 영연히 해방시켜주시고 긍지높고 열렬넉치는 그의 삶을 보살피려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었다.

이 동무가 좋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축산을 잘하여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고기와 닭알을 인민군대에 무상으로 보내 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동무는 녀성대원으로 일을 잘하였기때문에 토론을 잘하였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도 아이를 업고 올라왔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일에서 신심이 생기고 어떤 일이든지 꼭 해내야합니다. 다른 대의원동무들도 이 동무의 모범을 따르며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애쓰실념을 잊었다. 득관녀성은 회의후시참이 되었어도 자리에서 일어설념을 잊었다. 그런데 한 일군이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었다. 휴게실에 들어서서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간 일을 많이 하였다고 거듭 치하해주시고는 누군가를 부르시었다. 득관녀성에게 다가온 그는 어서 몸을 재고 하라하셨다. 그는 재단사였다. 난데없이 몸을 재는 바람에 김득관녀성은 어안이 벋벋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거니 하였다. 그러는 득관녀성을 정경에 바라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곁에 있는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이 동무가 한생애 동안 성의를 다하여 양부이라는걸 잊어보았소라고 하시며 어안이 벋벋하여 나라들을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성원으로 보내려고 하니 몸을 맡겨 맡겨 맡겨주고 일체 준비를 갖추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저는 사랑은 그뿐이 아니었다. 김득관녀성의 외국출장준비를 두고 세심하게 마음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녀성들은 조선옷을 입어야 보기가 좋다고 하시며 조선차마지러고다니며 마땅히 해주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안고 압록강물처럼 걷는 그는 그에게서 생각이 없었다. 압록강가대공사에서 승진 이버지생각도 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했던 배를 그러하고 공사장에 나가야 하면 아버지는 끝내 굶주림에 쓰러졌었다. 거기에 싸인 아버지의 시신우에 한줄, 두줄 훑어 버려질 때 김득관녀성은 이제는 아버지가 없구나 하는 슬픔과 서늘함을 눈물로 얼마나 흘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었다. 어머니도 계시었다. 민족적의무와 계급적의무, 성별의 구속에서 영연히 해방시켜주시고 긍지높고 열렬넉치는 그의 삶을 보살피려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었다.

민족적의무와 계급적의무, 성별의 구속에서 영연히 해방시켜주시고 긍지높고 열렬넉치는 그의 삶을 보살피려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었다.

민족적의무와 계급적의무, 성별의 구속에서 영연히 해방시켜주시고 긍지높고 열렬넉치는 그의 삶을 보살피려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었다.

민족적의무와 계급적의무, 성별의 구속에서 영연히 해방시켜주시고 긍지높고 열렬넉치는 그의 삶을 보살피려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었다.

민족적의무와 계급적의무, 성별의 구속에서 영연히 해방시켜주시고 긍지높고 열렬넉치는 그의 삶을 보살피려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었다.

민족적의무와 계급적의무, 성별의 구속에서 영연히 해방시켜주시고 긍지높고 열렬넉치는 그의 삶을 보살피려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었다.

28놈의 치안대놈들을 체포하였다. 이렇게 그는 여섯자루의 보총으로 악질치안대 42놈을 사로잡아 내무기관에 넘겨주었다. 재건적이 시작되자 김득관녀성은 사물치는 고지강을 넘나들며 군인의 인민들을 인민군대원으로서 불러일으켰다. 계급의식이 투철하고 당적원칙이 강한 김득관녀성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원수들은 그를 꺾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당시 중앙의 요직을 차지하고있던 나쁜놈들은 그가 저들의 지지를 받아놓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한 죄를 들먹여주려 하였다. 주제 41 (1952)년 1월 어느날 김득관녀성은 자기의 문제를 결정하자 중앙으로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의견이 있었지만 그는 잣대만을 업고 눈보라길을 사물동안 걸어서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찾아가니 한 간부라는 자가 문서를 뒤적거리며 왜 모내기는 제 날아하 하지 못했는가, 현물에는 왜 체포도 하지 않는가 등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결합》을 들먹여 일련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김득관녀성은 피로로 마음으로 지나가던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으랴. 갑자기 달려든 적기의 공습에 자동차가 전복되면서 등에 얹었던 책꽂이가 슬펐던 것이다. 그에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이었다. 머리를 늘어뜨린 아들을 부둥켜안은 김득관녀성은 너무도 애가 타 속에는 새까만 재가 들어있고 앞뒤사마저 보이지 않았다. 재는 땀으로 온다고 그러지 않아도 심증이 복잡한 득관녀성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도 가혹한 타격이었다. 김득관녀성은 나라의 귀중한 아들딸들이 파롤머리 조국의 한치한치를 지켜가고있는 때에 내 아이 하나때문에 백을 놓을수 없었다고 자기를 다잡으며 그것을 잊어보려고 더욱 일과 파롤머리라 애했다. 하지만 모성이 어찌할수 없게 아무런 일에 열중하다가 때없이 아이를 잃었던 잔등이 허전하다는 느낌이 없었고 그때마다 어디서나 《엄마》 하고 아들이가 자기를 찾는듯 한

수령복속에 꽃핀 조선녀성의 긍지와 행복

김득관녀성의 후반생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흘러갔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그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중앙기관들의 책임직인 위원에서 사임하였다. 김득관녀성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30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13년간 일하였다. 그 나날들은 수령복, 명도자복속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존엄이 있고 영광과 행복이 꽃피어났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는 긍지롭고 행복분 삶의 순간순간이었다. 주제 50 (1961)년 10월 김득관녀성이 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였다. 이전 쓰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와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녀성대회대표단 성원들을 찾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나라에서 최고인민위원만 리용하게 한다는 력사가 오랜 전통이었다.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렇게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고 대표단의 성원들은 출중한 녀성을 모신 민족의 녀성원 영광과 자부심이 일처졌다. 외국에 와서 동무들을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의 활동정황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투쟁을 잘했소, 우리 녀성들이 주체가 됐소, 아주 잘했소라고 대표단의 활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득관녀성에게 특관동무, 이 속소가 옛날 예게려나니내가 있던 궁전인데 저 의자에 앉아보시오, 양이 별게요 하시며 사랑하는 그를 기어이 끌며 두려운 의자에 앉히시고는 거기에 앉으니 꼭 너랑같다고 인자하게 웃으시었다. 국제녀성에 진출하여 조선녀성의 존엄과 긍지를 과시한 그들이 대견하시고 그러한 우리 녀성들을 공양적이라도 삼고싶으신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재대로 삼고계시었다. 1970년대초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제녀성대회에 파견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에게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표단성원들만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 1기때부터 일해오는 오랜 녀성대의원 김득관동무를 대표단에 참가시켜야 하겠습니까.

김득관녀성의 후반생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흘러갔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그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중앙기관들의 책임직인 위원에서 사임하였다. 김득관녀성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30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13년간 일하였다. 그 나날들은 수령복, 명도자복속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존엄이 있고 영광과 행복이 꽃피어났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는 긍지롭고 행복분 삶의 순간순간이었다. 주제 50 (1961)년 10월 김득관녀성이 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였다. 이전 쓰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와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녀성대회대표단 성원들을 찾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나라에서 최고인민위원만 리용하게 한다는 력사가 오랜 전통이었다.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렇게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고 대표단의 성원들은 출중한 녀성을 모신 민족의 녀성원 영광과 자부심이 일처졌다. 외국에 와서 동무들을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의 활동정황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투쟁을 잘했소, 우리 녀성들이 주체가 됐소, 아주 잘했소라고 대표단의 활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득관녀성에게 특관동무, 이 속소가 옛날 예게려나니내가 있던 궁전인데 저 의자에 앉아보시오, 양이 별게요 하시며 사랑하는 그를 기어이 끌며 두려운 의자에 앉히시고는 거기에 앉으니 꼭 너랑같다고 인자하게 웃으시었다. 국제녀성에 진출하여 조선녀성의 존엄과 긍지를 과시한 그들이 대견하시고 그러한 우리 녀성들을 공양적이라도 삼고싶으신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재대로 삼고계시었다. 1970년대초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제녀성대회에 파견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에게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표단성원들만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 1기때부터 일해오는 오랜 녀성대의원 김득관동무를 대표단에 참가시켜야 하겠습니까.

김득관녀성의 후반생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흘러갔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그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중앙기관들의 책임직인 위원에서 사임하였다. 김득관녀성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30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13년간 일하였다. 그 나날들은 수령복, 명도자복속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존엄이 있고 영광과 행복이 꽃피어났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는 긍지롭고 행복분 삶의 순간순간이었다. 주제 50 (1961)년 10월 김득관녀성이 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였다. 이전 쓰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와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녀성대회대표단 성원들을 찾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나라에서 최고인민위원만 리용하게 한다는 력사가 오랜 전통이었다.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렇게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고 대표단의 성원들은 출중한 녀성을 모신 민족의 녀성원 영광과 자부심이 일처졌다. 외국에 와서 동무들을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의 활동정황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투쟁을 잘했소, 우리 녀성들이 주체가 됐소, 아주 잘했소라고 대표단의 활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득관녀성에게 특관동무, 이 속소가 옛날 예게려나니내가 있던 궁전인데 저 의자에 앉아보시오, 양이 별게요 하시며 사랑하는 그를 기어이 끌며 두려운 의자에 앉히시고는 거기에 앉으니 꼭 너랑같다고 인자하게 웃으시었다. 국제녀성에 진출하여 조선녀성의 존엄과 긍지를 과시한 그들이 대견하시고 그러한 우리 녀성들을 공양적이라도 삼고싶으신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재대로 삼고계시었다. 1970년대초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제녀성대회에 파견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에게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표단성원들만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 1기때부터 일해오는 오랜 녀성대의원 김득관동무를 대표단에 참가시켜야 하겠습니까.

김득관녀성의 후반생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흘러갔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그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중앙기관들의 책임직인 위원에서 사임하였다. 김득관녀성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30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13년간 일하였다. 그 나날들은 수령복, 명도자복속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존엄이 있고 영광과 행복이 꽃피어났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는 긍지롭고 행복분 삶의 순간순간이었다. 주제 50 (1961)년 10월 김득관녀성이 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였다. 이전 쓰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와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녀성대회대표단 성원들을 찾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나라에서 최고인민위원만 리용하게 한다는 력사가 오랜 전통이었다.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렇게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고 대표단의 성원들은 출중한 녀성을 모신 민족의 녀성원 영광과 자부심이 일처졌다. 외국에 와서 동무들을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의 활동정황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투쟁을 잘했소, 우리 녀성들이 주체가 됐소, 아주 잘했소라고 대표단의 활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득관녀성에게 특관동무, 이 속소가 옛날 예게려나니내가 있던 궁전인데 저 의자에 앉아보시오, 양이 별게요 하시며 사랑하는 그를 기어이 끌며 두려운 의자에 앉히시고는 거기에 앉으니 꼭 너랑같다고 인자하게 웃으시었다. 국제녀성에 진출하여 조선녀성의 존엄과 긍지를 과시한 그들이 대견하시고 그러한 우리 녀성들을 공양적이라도 삼고싶으신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재대로 삼고계시었다. 1970년대초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제녀성대회에 파견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에게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표단성원들만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 1기때부터 일해오는 오랜 녀성대의원 김득관동무를 대표단에 참가시켜야 하겠습니까.

김득관녀성의 후반생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흘러갔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그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중앙기관들의 책임직인 위원에서 사임하였다. 김득관녀성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30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13년간 일하였다. 그 나날들은 수령복, 명도자복속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존엄이 있고 영광과 행복이 꽃피어났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는 긍지롭고 행복분 삶의 순간순간이었다. 주제 50 (1961)년 10월 김득관녀성이 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였다. 이전 쓰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와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녀성대회대표단 성원들을 찾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나라에서 최고인민위원만 리용하게 한다는 력사가 오랜 전통이었다.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렇게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고 대표단의 성원들은 출중한 녀성을 모신 민족의 녀성원 영광과 자부심이 일처졌다. 외국에 와서 동무들을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의 활동정황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투쟁을 잘했소, 우리 녀성들이 주체가 됐소, 아주 잘했소라고 대표단의 활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득관녀성에게 특관동무, 이 속소가 옛날 예게려나니내가 있던 궁전인데 저 의자에 앉아보시오, 양이 별게요 하시며 사랑하는 그를 기어이 끌며 두려운 의자에 앉히시고는 거기에 앉으니 꼭 너랑같다고 인자하게 웃으시었다. 국제녀성에 진출하여 조선녀성의 존엄과 긍지를 과시한 그들이 대견하시고 그러한 우리 녀성들을 공양적이라도 삼고싶으신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재대로 삼고계시었다. 1970년대초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제녀성대회에 파견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에게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표단성원들만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 1기때부터 일해오는 오랜 녀성대의원 김득관동무를 대표단에 참가시켜야 하겠습니까.

작가와 빠져 남몰래 눈물짓곤 하였다. 슬픔과 피로움을 몸부림치던 그때 신념의 기동, 의지의 기동이 되어주시어 그를 연약한 녀성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신념과 의지의 장사로 키워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김득관녀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앞에 서니 딸자식의 온갖 피로움을 헤아려주는 친아저씨와 애서처럼 눈물줄기가 동을 터뜨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신채 그를 바라보시다가 그렇게 자주 눈물이 날 때에는 실컷 우는것도 좋습니더라고 따뜻이 이르시고는 동무는 군인민위원회장도 힘들었지만 시집살이까지 하고 아이들도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았다고,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몇번이나 껴안아 말씀하시었다. 진정 김득관녀성이 겪은 그 모든 가슴아픈 사연을 속속들이 알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아버지수령님앞에서 그의 가슴에 맺힌 모든 응어리는 봄날의 눈처럼 마냥 녹아내렸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의 사업을 이끌어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머지않아 미국놈은 녹아나고 우리 전정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일을 잘하라라고 믿습시다.

수령복속에 꽃핀 조선녀성의 긍지와 행복

김득관녀성의 후반생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흘러갔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그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중앙기관들의 책임직인 위원에서 사임하였다. 김득관녀성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30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13년간 일하였다. 그 나날들은 수령복, 명도자복속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존엄이 있고 영광과 행복이 꽃피어났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는 긍지롭고 행복분 삶의 순간순간이었다. 주제 50 (1961)년 10월 김득관녀성이 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였다. 이전 쓰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와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녀성대회대표단 성원들을 찾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나라에서 최고인민위원만 리용하게 한다는 력사가 오랜 전통이었다.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렇게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고 대표단의 성원들은 출중한 녀성을 모신 민족의 녀성원 영광과 자부심이 일처졌다. 외국에 와서 동무들을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의 활동정황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투쟁을 잘했소, 우리 녀성들이 주체가 됐소, 아주 잘했소라고 대표단의 활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득관녀성에게 특관동무, 이 속소가 옛날 예게려나니내가 있던 궁전인데 저 의자에 앉아보시오, 양이 별게요 하시며 사랑하는 그를 기어이 끌며 두려운 의자에 앉히시고는 거기에 앉으니 꼭 너랑같다고 인자하게 웃으시었다. 국제녀성에 진출하여 조선녀성의 존엄과 긍지를 과시한 그들이 대견하시고 그러한 우리 녀성들을 공양적이라도 삼고싶으신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재대로 삼고계시었다. 1970년대초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제녀성대회에 파견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에게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표단성원들만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 1기때부터 일해오는 오랜 녀성대의원 김득관동무를 대표단에 참가시켜야 하겠습니까.

김득관녀성의 후반생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흘러갔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그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중앙기관들의 책임직인 위원에서 사임하였다. 김득관녀성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30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13년간 일하였다. 그 나날들은 수령복, 명도자복속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존엄이 있고 영광과 행복이 꽃피어났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는 긍지롭고 행복분 삶의 순간순간이었다. 주제 50 (1961)년 10월 김득관녀성이 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였다. 이전 쓰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와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녀성대회대표단 성원들을 찾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나라에서 최고인민위원만 리용하게 한다는 력사가 오랜 전통이었다.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렇게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고 대표단의 성원들은 출중한 녀성을 모신 민족의 녀성원 영광과 자부심이 일처졌다. 외국에 와서 동무들을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의 활동정황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투쟁을 잘했소, 우리 녀성들이 주체가 됐소, 아주 잘했소라고 대표단의 활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득관녀성에게 특관동무, 이 속소가 옛날 예게려나니내가 있던 궁전인데 저 의자에 앉아보시오, 양이 별게요 하시며 사랑하는 그를 기어이 끌며 두려운 의자에 앉히시고는 거기에 앉으니 꼭 너랑같다고 인자하게 웃으시었다. 국제녀성에 진출하여 조선녀성의 존엄과 긍지를 과시한 그들이 대견하시고 그러한 우리 녀성들을 공양적이라도 삼고싶으신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재대로 삼고계시었다. 1970년대초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제녀성대회에 파견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에게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표단성원들만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 1기때부터 일해오는 오랜 녀성대의원 김득관동무를 대표단에 참가시켜야 하겠습니까.

김득관녀성의 후반생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흘러갔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그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중앙기관들의 책임직인 위원에서 사임하였다. 김득관녀성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30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13년간 일하였다. 그 나날들은 수령복, 명도자복속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존엄이 있고 영광과 행복이 꽃피어났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는 긍지롭고 행복분 삶의 순간순간이었다. 주제 50 (1961)년 10월 김득관녀성이 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였다. 이전 쓰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와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녀성대회대표단 성원들을 찾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나라에서 최고인민위원만 리용하게 한다는 력사가 오랜 전통이었다.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렇게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고 대표단의 성원들은 출중한 녀성을 모신 민족의 녀성원 영광과 자부심이 일처졌다. 외국에 와서 동무들을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의 활동정황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투쟁을 잘했소, 우리 녀성들이 주체가 됐소, 아주 잘했소라고 대표단의 활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득관녀성에게 특관동무, 이 속소가 옛날 예게려나니내가 있던 궁전인데 저 의자에 앉아보시오, 양이 별게요 하시며 사랑하는 그를 기어이 끌며 두려운 의자에 앉히시고는 거기에 앉으니 꼭 너랑같다고 인자하게 웃으시었다. 국제녀성에 진출하여 조선녀성의 존엄과 긍지를 과시한 그들이 대견하시고 그러한 우리 녀성들을 공양적이라도 삼고싶으신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재대로 삼고계시었다. 1970년대초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제녀성대회에 파견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에게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표단성원들만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 1기때부터 일해오는 오랜 녀성대의원 김득관동무를 대표단에 참가시켜야 하겠습니까.

김득관녀성의 후반생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흘러갔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그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중앙기관들의 책임직인 위원에서 사임하였다. 김득관녀성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30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13년간 일하였다. 그 나날들은 수령복, 명도자복속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존엄이 있고 영광과 행복이 꽃피어났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는 긍지롭고 행복분 삶의 순간순간이었다. 주제 50 (1961)년 10월 김득관녀성이 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였다. 이전 쓰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와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녀성대회대표단 성원들을 찾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나라에서 최고인민위원만 리용하게 한다는 력사가 오랜 전통이었다.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렇게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고 대표단의 성원들은 출중한 녀성을 모신 민족의 녀성원 영광과 자부심이 일처졌다. 외국에 와서 동무들을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의 활동정황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투쟁을 잘했소, 우리 녀성들이 주체가 됐소, 아주 잘했소라고 대표단의 활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득관녀성에게 특관동무, 이 속소가 옛날 예게려나니내가 있던 궁전인데 저 의자에 앉아보시오, 양이 별게요 하시며 사랑하는 그를 기어이 끌며 두려운 의자에 앉히시고는 거기에 앉으니 꼭 너랑같다고 인자하게 웃으시었다. 국제녀성에 진출하여 조선녀성의 존엄과 긍지를 과시한 그들이 대견하시고 그러한 우리 녀성들을 공양적이라도 삼고싶으신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재대로 삼고계시었다. 1970년대초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제녀성대회에 파견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에게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표단성원들만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 1기때부터 일해오는 오랜 녀성대의원 김득관동무를 대표단에 참가시켜야 하겠습니까.

김득관녀성의 후반생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흘러갔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그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중앙기관들의 책임직인 위원에서 사임하였다. 김득관녀성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30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13년간 일하였다. 그 나날들은 수령복, 명도자복속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존엄이 있고 영광과 행복이 꽃피어났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는 긍지롭고 행복분 삶의 순간순간이었다. 주제 50 (1961)년 10월 김득관녀성이 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였다. 이전 쓰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와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녀성대회대표단 성원들을 찾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나라에서 최고인민위원만 리용하게 한다는 력사가 오랜 전통이었다.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렇게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고 대표단의 성원들은 출중한 녀성을 모신 민족의 녀성원 영광과 자부심이 일처졌다. 외국에 와서 동무들을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의 활동정황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투쟁을 잘했소, 우리 녀성들이 주체가 됐소, 아주 잘했소라고 대표단의 활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득관녀성에게 특관동무, 이 속소가 옛날 예게려나니내가 있던 궁전인데 저 의자에 앉아보시오, 양이 별게요 하시며 사랑하는 그를 기어이 끌며 두려운 의자에 앉히시고는 거기에 앉으니 꼭 너랑같다고 인자하게 웃으시었다. 국제녀성에 진출하여 조선녀성의 존엄과 긍지를 과시한 그들이 대견하시고 그러한 우리 녀성들을 공양적이라도 삼고싶으신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재대로 삼고계시었다. 1970년대초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제녀성대회에 파견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에게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표단성원들만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 1기때부터 일해오는 오랜 녀성대의원 김득관동무를 대표단에 참가시켜야 하겠습니까.

서 김득관녀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그는 자기의 손가락에 끼워져있는 금반지를 하얗고 내려다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득관녀성의 건강을 녀려하시어 선물로 보내주신 자석금반지였다. 주제 75 (1986)년 10월 16일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득관녀성이 어머니가 건강하고, 지금 무엇을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시골로여행지에 나가 출장도 다닌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기뻐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동무가 군인민위원장을 할 때 일을 아주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어머니는 꼭 좋은 어머니입니다라고 뜻깊은 추억의 말씀을 하시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김득관녀성은 또다시 화회에 올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말씀하시었다. 김득관동무는 일부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해방직후와 전후시기에 평안북도 래천군에서 군위원장을 하면서 소문났습시다. ...지금 건강하지 모르겠습시다. 시골로여행지에 나가 지방출장을 다니면서 일하고있다면 좋습시다. 원래 해방직후부터 일로 늙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파시한 자랑찬 승리

연평도포사격전투 승리 3돐 기념 모임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서남전선의 열적지역에서 도발자들의 망동을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다스린 패승을 이룩한 때로부터 3년이 되었다.

은 나라 천만군은 연평도포격전의 패승을 망각하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무분별하게 달려드는 침략의 무리들을 이 땅에서 모조리 쓸어버릴 열적의 기상에 넘쳐있다.

연평도포사격전투 승리 3돐 기념모임이 23일 강령군에서 있었다.

모임은 강령군 읍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 앞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군민의 단합된 위력으로 적들의 침략행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밀고나가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 리성국, 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영호,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최정봉, 조선인민군 장병들, 강령군 인의 일군들, 인민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고 우리는 언제나 이같이도 결의 신념과 의지가 끓어 넘치는 모임 장소에 《조선인민군가》, 《수령이시여 명명만 내리시라》 등의 노래들이 주악되면서 기백에 넘친 군악례식이 펼쳐졌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연평도포격전에서 용맹을 떨친 전투원들에게 군포들과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꽃뭉치를 줄여주며 그들의 위훈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리성국 제4군단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당과 수령이 안겨준 무진막강한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쥔 우리 인민군대가 연평도포사격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래를 반박하여 파시한 그날의 포성은 무적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불타는 연평도》는 선군조선의 승리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남장도 미제와 남조선피괴적패당이 《천안》 호사건이라는 특대형사기국을 조작하고 서남해상을 작전무대로 한 북침전쟁연습에 미처 날뛰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군단장병들은 2010년 11월 23일 신성한 우리의 평화에 총포탄을 쏘아대는 도발자들에게 복수의 명중탄을 날리고 백두산혁명강군의 진차 총대맛, 불벼락맛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명중포화력에 연평도가 이틀간이나 불바다가 되어버린 소식은 온 세상을 들썩하게 하였으며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적들은 불안과 공포에 질리게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연평도포사격전투에서 부대의 장병들은 회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고 군대와 인민의 입심단결의 위력이 있어 그 어떤 원수도 격멸소탕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연평도를 통해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백두산혁명강군의 필승의 기상을 떨친 군인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1년 남짓한 사이에 여러차례나 과도세한 풍랑질을 헤쳐 최대열적지역의 섬초소들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새로운 작전전술적명장들을 밝혀주시고 섬

방어대들의 병실과 살림집들을 훌륭히 꾸려주도록 하시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다심한 사랑속에 섬초소들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고 천도개벽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군인들은 언제나 조국수호의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설자는 연평도포격전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사에서 교훈을 찾는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미처 날뛰고있는 남장도 미제와 피괴적패당의 책동으로 하여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군단의 전체 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두산훈원명용을 세차게 일으키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배인 군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전투에 서세지고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과 천만군민의 입심단결의 힘이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박영호책임비서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존엄을 힘차게 떨치고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준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내었다.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벼락에 혼살이 난 리병막적패당이 청와대지하실에 들

어박혀 《화전》만은 막아야 한다고 비명을 질렀으며 책임을 총대들에게 돌리려 목을 매는 추태를 부린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군민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군대를 성실성의 원호하며 만일 적들이 우리 조국땅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친다면 3년전의 그날처럼 모두가 군인들과 함께 싸워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령군작병위원회 위원장 리종은은 축하연설에서 지금도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불소나기에 연어맛고 갈망정팔하던 원수들의 가련한 꼴을 보는것만 같다고 말하였다.

연평도포격전이 벌어지던 그날 군인의 일군들과 주진들, 농장원들이 원호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군인들을 찾아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심신을 안겨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령군인민들이 이런 소행을 발휘할수 있었는것은 천출인민들께서 계시고 최정에혁명강군인 인민군대가 있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에 가슴마다에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군관 김경수, 영웅포 포장 최영진은 결의로전에서 피괴적패당이 쓰디 쓴 참예의 교훈을 찾는 대신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군사적도발책동을 일삼으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부대안의 전체 장병들은 다지고 다져온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연평도포사격전투의 승리를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로 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군인들은 그 어떤 조건과 정황에서도 오직 명중포성만을 울리는 일당백만배로 명으로 든든히 준비하며 적들의 사소한

도발에도 즉시적인 심벌적반타격을 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고 인민의 웃음에서 긍지를 느낄수 있는 참다운 인민의 군대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은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총대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끝났다.

모임이 끝난 다음 조선인민군 제4군단대술선전대의 공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린다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

올해를 몇몇이 총화할 열의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올해를 몇몇이 총화할수 있게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매일 어김없이 집행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을 높이

공장에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직장, 작업반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여 더 많은 편직물을 생산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있다.

매주 설비점검의 날을 계기로 공장의 일군들이 직장, 작업반에서 내려가 설비들의 기술상태와 성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결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 모든 설비들이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수리공들의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도록 하고있다.

신 의 주 편 직 공 장 에 서

신 의 주 편 직 공 장 에 서 《마식령수도》 창조의 불길에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9월말까지 연간 공업생산액계획을 초과수행한 기세를 누치지 않고 지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결론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농업원들은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왔다.

실종은 유리그릇을 더 많이

원산유리병공장에서

에서 찾은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올해에만도 공장에서 생산한 유리병을 창고에 쌓아두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유리병을 생산하는 공장을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자재의 합리적 리용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였다.

원산유리병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각종 유리그릇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직장의 로동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고있고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질주하고 쏠모이는 유리그릇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직장에서는 교대 호상

원격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원격작업반의 로동자들은 필연적, 실용적의 리용률을 높여온 온도보장을 기술적으로구대하여 건조시간을 훨씬 줄이고있다. 뿐만아니라 증기를 위한 효과적 리용을 위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같은 량의 증기를 가지고 실, 뜨거운, 양달일색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제단작업반의 제단공들도 창조적지혜를 합쳐 형식들의 배를 합리적으로 하고 현대적인 제단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제단용생산과제를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편직물생산의 마감공정을 지켜선 가공공장 작업반들의 제품공들은 재봉기를 능동자

다 만가동은 보장하고

다 만가동은 보장하고 만부하를 절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내려가 화선시정치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내며 로동자들의 위훈창조로 불리우고 있다.

가공종합작업반을 맡고나간 지배인 김광일동무는 로동자들의 가슴속에 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을 지켜선 책임감을 깊이 심어주며 설비마다 만부하를 절도록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지배인은 작업반에서 예비수준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설비부수를 제때에 진행하여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업반원들에 대한

공중합작업반을 맡고나

공중합작업반을 맡고나간 지배인 김광일동무는 로동자들의 가슴속에 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을 지켜선 책임감을 깊이 심어주며 설비마다 만부하를 절도록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지배인은 작업반에서 예비수준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설비부수를 제때에 진행하여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업반원들에 대한

공무작업반에

공무작업반에 서도 생산을 함께 책임지는 림계 책임지는 림계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려 여러가지 부족점들과 각종 유리그릇형식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해줌으로써 공장의 계획수행에 이바지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할수가 없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고생산년도수준 돌파

수양산은하피복공장에서

수양산은하피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치열한 생산돌격전을 벌리며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경영업공장에서 생산을 높이는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생산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리공들의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도록 하고있다.

매주 설비점검의 날을 계기로 공장의 일군들이 직장, 작업반에서 내려가 설비들의 기술상태와 성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결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 모든 설비들이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수리공들의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도록 하고있다.



실종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함흥일용품공장에서- 특파기자 찍음

내세우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지배인 리재성동무는 비롯한 일군들은 늘리는 현창에 깊이 들어가 자체보장을 확고히 앞세우고 공정한 편계를 잘 맺어주면서 기대별, 공명별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고있는 생산자대중을 적극 고무해 주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하는 기술준비실과 제단작업반에서 혁신의 불길에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제단작업반의 제단공들은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에 제품의 형태학적특성과 기술적으로에 맞는 각종 규격의 형식들에 따르는 합리적인 사업방법과 제단방법을 적용하여 제단실수를 높이 고 제단품을 제때에 생산보장 하였다.

최고생산년도수준 돌파

수양산은하피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치열한 생산돌격전을 벌리며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경영업공장에서 생산을 높이는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생산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리공들의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도록 하고있다.

매주 설비점검의 날을 계기로 공장의 일군들이 직장, 작업반에서 내려가 설비들의 기술상태와 성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결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 모든 설비들이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수리공들의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도록 하고있다.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내걸고

우시장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우시장공장에서

두메산골 우시군에서는 상업망을 통해 주민들에게에 매달 기초식품들과 당과류, 기름, 비누, 위생종이를 비롯한 인민소비품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다. 인민들이 특별히 좋아하는것은 장공장에서 생산되는 기초식품들이다. 우시장공장에서 생산한 기초식품들은 맛이 좋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군인의 주진들에게는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대적 과학 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이것이 현시대의 자력갱생입니다.》

2년전 지배인으로 사업을 시작한 전진순동무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맞춤형 영양가 높은 기초식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 당의 높은 신념에 보답할 결심을 굳

산능력은 종전에 비해 3배이상으로 뛰어올랐다. 기초식품의 맛과 질이 높아졌고 전력 소비는 지난 시기보다 훨씬 낮아졌다. 이뿐이 아니다. 공장에서는 생명명의 노력에비를 찾아내어 효과적 리용할수 있게 되었다.

공장은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는 보배공장으로 군주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공장에서 월별, 분기별 기초식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원료기지에서 생산한 원료를 가지고 매일된장, 고추장, 고기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까지도 계속 높이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에 상응하여 새기고 기초식품출하공정에 수직식유체계방정제를 받아들였고 경영활동전반에 대한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새겨가는 뚜렷한 삶의 자욱

송고한 뜻 받들어 값높은 삶을 빛내이리

풍서군 관흥협동농장 3대혁명붉은기 제3작업반원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1993년 3월 풍서군당위원회 일꾼들의 안해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군당책임일꾼의 안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오늘도 농수령을 견고게 하는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당일꾼들의 안해들인 우리가 모두 농장에 자원전출하여 작업반을 꾸리고 농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의 결심을 모두가 지지하며 농사를 잘 지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꼭 기쁨을 드리자고 호응해 나갔다.

며칠후 군당일꾼들의 안해들은 자기들의 결의를 담은 편지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

그의 격정적인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리당비서인 김금옥동무가 조용히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작업반을 꾸리고 농장에 진출할 때의 생각이 나는구나. 그때 우리들속에는 누구도 농사일을 해본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그때 작업반장도 분조장도 모두가 서로 마음과 지혜를 합쳐가며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갔어요.》

그때 분조장으로 일한 리당비서는 군당일꾼들의 안해들로 작업반을 꾸리고 일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0여명의 군당일꾼들의 안해들로 작업반이 조직되었을 때 누구나 결의가 좋았다.

하지만 농사일은 생각과는 달랐다.

대부분이 처녀시절부터 농사일을 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서 농사일은 험악하였다. 새벽부터 어둠이 깃들 때까지 진저리를 나르고 그것을 다시 정작은 거름으로 만들어 산경사지의 포진으로 매달고 같이 저 나르니 얼마나 어깨가 떨어지는듯했다. 그리고 나서 탁아소, 유치원에 다니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면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은 군이 우리를 지켜준다. 첫째 농사에서부터 본래를 보이자.

그들은 서로 고무하고 이끌어 주며 첫해 농사를 앞설있게 지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서기하시었다는 비보에 접하였을 때에 그들은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바꾸어 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더욱 분발하였다. 그들은 정보당 집종은 거름 30t 이상, 휴토산비료 20t이상 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감자농사에서 종자와 함께 거름이 기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집종은 거름을 더 많이 내기 위해 아글라콜 노력을 하였다.

거름생산전투를 벌릴 때에는 언제나 하루해가 지는지 몰랐다. 그러던 그들을 군당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었다.

헤마다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부시별, 개인별전거름 생산경쟁을 조직하고 생산한 전거름을 제3작업반에 보내주었다. 저녁에는 남편들이 아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찾아오며 가정에서 제기되는 일을 적극 도와주었다.

그러하여 작업반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헤마다 농사를 안전하게 지어왔다. ...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김금옥동무는 이렇게 말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자 농사에서 종자, 물거름, 정성이 기본이라고 하시었다. 이것을 명심하고 작업반원들의 정진력을 총발동하면 헤마다 농사에서 장운을 부를수 있어요.》

그날 저녁 리순옥동무는 밤급도록 작업반을 잘 꾸리고 농사도 잘 해내겠다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자제의 힘으로 농업과학기술 지식전진실과 감자종자신품우기장, 감자종자저장고, 날감자공실을 건설하고 우량종종의 감자종자를 확보하며 탁아소까지 운영하려는 작업반장들의 결심에

모두가 놀랐다.

《우리아 농장의 주인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며 리순옥동무는 작업반을 더욱 본때있게 꾸려나가기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영농공정에 따르는 농산작업을 드림없이 내밀면서 자제의 힘으로 작업반을 꾸리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농업과학기술지식전진실이 훌륭히 일떠서고 작업반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작업반의 포진들을 돌아보던 리순옥동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감자종자를 먼저 심은 포진이 한주후에 종자를 심은 포진에 비하여 생육이 좋지 못하였던것이다. 농장의 기술일꾼들이 달려왔다.

따져보니 농약의 희석비율을 소홀히 하여 생육이 억제되었던 것이다. 작업반에서는 즉시 대책을 세웠다. 리순옥동무는 그날 생각이 많았다.

(농사를 안전하게 잘 짓으면 결정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우리 작업반에는 거의 모두가 대학졸업생들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대학졸업생은 한명도 없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농사를 잘 짓자면 배워야 한다. 모두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배우자.

그때로부터 몇해후 대학졸업생인 작업반장 리순옥동무는 비롯하여 거의 모두가 대학, 전문학교졸업생들이 작업반원들이

일하면서 풍서농민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농산기술을 소유하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가면서 그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작업반에서는 작업반장 리순옥동무와 조순애동무가 착상한 새로운 감자종자저장우기공실을 서로의 지혜를 합쳐 연구도입함으로써 감자저장기를 앞당기고 생육기일을 더 늘일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감자농사에서 대단히 의의가 큰것이었다.

그뿐아니라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습지대의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종전보다 정보당 총생산량을 훨씬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날에 작업반은 농사를 잘 짓는 작업반으로 이름떨쳐졌으며 3대혁명붉은기도 쟁취하였다.

그들은 좋은 일도 많이 찾아하고있다. 비경지에 심은 해바라기에서 찬 기쁨을 온안의 정성로병들과 영예군인가정들에 보내주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친혈육의 정을 다해 돌봐주고있다.

올해는 풍서군당 일꾼들의 안해들로 작업반을 조직한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월 그들은 20년동안 헤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해온 자랑과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영원히 앞장설 결의를 담은 편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렸다.

지금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한 공지를 최고로 축하하며 농사준비를 민들없이 해가고있다.

본사기자 조 루봉

열렬한 향토애를 지니고

어랑군 산림경영소 일꾼들과 농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조성사업을 전방성 있게 계획적으로 하자면 나무모 기르기를 앞세워야 합니다.》

어랑군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농업원들이 열렬한 조국애와 향토애를 지니고 나무모기르기를 전방성있게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올해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여 군의 수목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이곳 일꾼들과 농업원들은 다음해에는 창성이갈나무를 비롯하여 수백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생산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며 대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산을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경영소에서는 다음해 나무모기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안전하게 지레낼수 있는 준비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자제의 힘으로 양묘장의 많은 면적에 대한 휴락이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휴토산비료생산을 다그쳐 지력을 높여나가고있다.

양묘장을 구역적으로 만들고 농업원들이 열렬히 따르는 토양분석을 진행하며 기초하여 나무모심기준비를 미리미리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나무모저장고를 잘 꾸려놓고 추위가 들이닥치기 전에 어린 나무모를 관리할 잘하기 위한 사업조치를 민들없이 짜고들었다.

이곳 농업원들은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수백만그루에 달하는 어린 나무모들을 제때에 안전하게 지레내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경영소에서는 다음해 나무모기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안전하게 지레낼수 있는 준비

를 민들없이 갖추어놓았다.

산림감독원들은 담당한 산림구역들에 자제의 양묘장들을 꾸려놓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좋다고 평가하신 창성이갈나무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고 경제적이용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수만그루씩 기워낼 목표에 나무모관리와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이곳 일꾼들은 농업원들이 숲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있는 조건에 맞게 문화후생시설들을 잘 꾸려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동력을 들이고있다.

지금 이곳 산림경영소에서는 성형기에 의한 영양단지모양산기저우기르기를 다그치면서 나무모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년모양 모란봉구역핵과도매소에서 버섯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은쟁반 감사를 보내주시었다.

그들은 그 믿음에 보답할 한 마음으로 관흥협동농장으로 자원전출하였다.

그러하여 풍서군 관흥협동농장 제3작업반이 군당일꾼들의 안해들로 무어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합니다.》

8년전 어느 리당위원회로 한 녀성이 들어섰다. 제3작업반의 세번째 반장으로 일하게 된 리순옥동무였다.

《제가 작업반장사업을 꽤 해낼수 있을가요?》

그의 격정적인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리당비서인 김금옥동무가 조용히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작업반을 꾸리고 농장에 진출할 때의 생각이 나는구나. 그때 우리들속에는 누구도 농사일을 해본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그때 작업반장도 분조장도 모두가 서로 마음과 지혜를 합쳐가며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갔어요.》

그때 분조장으로 일한 리당비서는 군당일꾼들의 안해들로 작업반을 꾸리고 일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0여명의 군당일꾼들의 안해들로 작업반이 조직되었을 때 누구나 결의가 좋았다.

하지만 농사일은 생각과는 달랐다.

대부분이 처녀시절부터 농사일을 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서 농사일은 험악하였다. 새벽부터 어둠이 깃들 때까지 진저리를 나르고 그것을 다시 정작은 거름으로 만들어 산경사지의 포진으로 매달고 같이 저 나르니 얼마나 어깨가 떨어지는듯했다. 그리고 나서 탁아소, 유치원에 다니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면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은 군이 우리를 지켜준다. 첫째 농사에서부터 본래를 보이자.

그들은 서로 고무하고 이끌어 주며 첫해 농사를 앞설있게 지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서기하시었다는 비보에 접하였을 때에 그들은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바꾸어 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더욱 분발하였다. 그들은 정보당 집종은 거름 30t 이상, 휴토산비료 20t이상 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감자농사에서 종자와 함께 거름이 기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집종은 거름을 더 많이 내기 위해 아글라콜 노력을 하였다.

거름생산전투를 벌릴 때에는 언제나 하루해가 지는지 몰랐다. 그러던 그들을 군당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었다.

헤마다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부시별, 개인별전거름 생산경쟁을 조직하고 생산한 전거름을 제3작업반에 보내주었다. 저녁에는 남편들이 아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찾아오며 가정에서 제기되는 일을 적극 도와주었다.

그러하여 작업반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헤마다 농사를 안전하게 지어왔다. ...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김금옥동무는 이렇게 말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자 농사에서 종자, 물거름, 정성이 기본이라고 하시었다. 이것을 명심하고 작업반원들의 정진력을 총발동하면 헤마다 농사에서 장운을 부를수 있어요.》

그날 저녁 리순옥동무는 밤급도록 작업반을 잘 꾸리고 농사도 잘 해내겠다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자제의 힘으로 농업과학기술 지식전진실과 감자종자신품우기장, 감자종자저장고, 날감자공실을 건설하고 우량종종의 감자종자를 확보하며 탁아소까지 운영하려는 작업반장들의 결심에

모두가 놀랐다.

《우리아 농장의 주인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며 리순옥동무는 작업반을 더욱 본때있게 꾸려나가기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영농공정에 따르는 농산작업을 드림없이 내밀면서 자제의 힘으로 작업반을 꾸리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농업과학기술지식전진실이 훌륭히 일떠서고 작업반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작업반의 포진들을 돌아보던 리순옥동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감자종자를 먼저 심은 포진이 한주후에 종자를 심은 포진에 비하여 생육이 좋지 못하였던것이다. 농장의 기술일꾼들이 달려왔다.

따져보니 농약의 희석비율을 소홀히 하여 생육이 억제되었던 것이다. 작업반에서는 즉시 대책을 세웠다. 리순옥동무는 그날 생각이 많았다.

(농사를 안전하게 잘 짓으면 결정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우리 작업반에는 거의 모두가 대학졸업생들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대학졸업생은 한명도 없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농사를 잘 짓자면 배워야 한다. 모두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배우자.

그때로부터 몇해후 대학졸업생인 작업반장 리순옥동무는 비롯하여 거의 모두가 대학, 전문학교졸업생들이 작업반원들이

일하면서 풍서농민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농산기술을 소유하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가면서 그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작업반에서는 작업반장 리순옥동무와 조순애동무가 착상한 새로운 감자종자저장우기공실을 서로의 지혜를 합쳐 연구도입함으로써 감자저장기를 앞당기고 생육기일을 더 늘일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감자농사에서 대단히 의의가 큰것이었다.

그뿐아니라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습지대의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종전보다 정보당 총생산량을 훨씬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날에 작업반은 농사를 잘 짓는 작업반으로 이름떨쳐졌으며 3대혁명붉은기도 쟁취하였다.

그들은 좋은 일도 많이 찾아하고있다. 비경지에 심은 해바라기에서 찬 기쁨을 온안의 정성로병들과 영예군인가정들에 보내주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친혈육의 정을 다해 돌봐주고있다.

올해는 풍서군당 일꾼들의 안해들로 작업반을 조직한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월 그들은 20년동안 헤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해온 자랑과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영원히 앞장설 결의를 담은 편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렸다.

지금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한 공지를 최고로 축하하며 농사준비를 민들없이 해가고있다.

본사기자 조 루봉

순천제약공장 직장장

황명원동무가 순천제약공장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으로서 사업한것은 몇해전부터이다. 그동안 직장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수놓아왔다. 매해 계획을 이김없이 수행하였고 직장장의 면모를 안팎으로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켜왔다. 농업원들은 황명원동무를 우리 직장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기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합된 애국의 한결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순천제약공장에서 이스피린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황명원동무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바로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인 자기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여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 뭘겠소.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품소 다져나신 일터에서 이스피린

생산이 정상화되어야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고 말할수 있지. 그다 임버릇처럼 하는 이 말은 어느덧 직장장원들의 한결같은 신조로 되었다. 황명원동무는 앉으나서나 생산을 생각하였다.

《우리는 여러개의 발명품이 있다. 산공과제법법을 받아들여 생산장에서는 한해치고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계절에는 대체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였어. 생산에 리용되는 원료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이었다. 하지만 황명원동무는 이 문제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깊은 사색과 탐구끝에 끝내 강추위속에서도 원료를 원상대로 보존하여 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사업에서는 손쉬운 세고 이악한 일꾼이지만 농업원들의 생활을 돌보아야 할 때는 인정많은 친형과도 같았다. 오빠같이 누누나 그에게 친한 친구를 리용하며 한집안 식구처럼 지낸다.

과연 무엇이 그의 가슴속에 그처럼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의 불길이 꺼질줄 모르고 타오르게 하는것인가.

황명원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5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사복무와 대학공부를 거쳐 오늘날은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직장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나깨나 당의 은혜에 보답하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본사기자 방성화

그는 평범한 란부였다

강원도중소관광관리국 통천관광 로동자였던 김정철동무는 그 어느 한곳에서도 만나볼수 있는 소박하고 고지식한 란부였다.

그의 이름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직장에서는 한해치고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계절에는 대체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였어. 생산에 리용되는 원료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이었다. 하지만 황명원동무는 이 문제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깊은 사색과 탐구끝에 끝내 강추위속에서도 원료를 원상대로 보존하여 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사업에서는 손쉬운 세고 이악한 일꾼이지만 농업원들의 생활을 돌보아야 할 때는 인정많은 친형과도 같았다. 오빠같이 누누나 그에게 친한 친구를 리용하며 한집안 식구처럼 지낸다.

과연 무엇이 그의 가슴속에 그처럼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의 불길이 꺼질줄 모르고 타오르게 하는것인가.

황명원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5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사복무와 대학공부를 거쳐 오늘날은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직장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나깨나 당의 은혜에 보답하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본사기자 방성화

그는 평범한 란부였다

강원도중소관광관리국 통천관광 로동자였던 김정철동무는 그 어느 한곳에서도 만나볼수 있는 소박하고 고지식한 란부였다.

그의 이름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직장에서는 한해치고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계절에는 대체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였어. 생산에 리용되는 원료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이었다. 하지만 황명원동무는 이 문제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깊은 사색과 탐구끝에 끝내 강추위속에서도 원료를 원상대로 보존하여 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사업에서는 손쉬운 세고 이악한 일꾼이지만 농업원들의 생활을 돌보아야 할 때는 인정많은 친형과도 같았다. 오빠같이 누누나 그에게 친한 친구를 리용하며 한집안 식구처럼 지낸다.

과연 무엇이 그의 가슴속에 그처럼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의 불길이 꺼질줄 모르고 타오르게 하는것인가.

황명원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5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사복무와 대학공부를 거쳐 오늘날은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직장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나깨나 당의 은혜에 보답하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본사기자 방성화

그는 평범한 란부였다

강원도중소관광관리국 통천관광 로동자였던 김정철동무는 그 어느 한곳에서도 만나볼수 있는 소박하고 고지식한 란부였다.

그의 이름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직장에서는 한해치고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계절에는 대체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였어. 생산에 리용되는 원료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이었다. 하지만 황명원동무는 이 문제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깊은 사색과 탐구끝에 끝내 강추위속에서도 원료를 원상대로 보존하여 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사업에서는 손쉬운 세고 이악한 일꾼이지만 농업원들의 생활을 돌보아야 할 때는 인정많은 친형과도 같았다. 오빠같이 누누나 그에게 친한 친구를 리용하며 한집안 식구처럼 지낸다.

과연 무엇이 그의 가슴속에 그처럼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의 불길이 꺼질줄 모르고 타오르게 하는것인가.

황명원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5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사복무와 대학공부를 거쳐 오늘날은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직장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나깨나 당의 은혜에 보답하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본사기자 방성화

그는 평범한 란부였다

강원도중소관광관리국 통천관광 로동자였던 김정철동무는 그 어느 한곳에서도 만나볼수 있는 소박하고 고지식한 란부였다.

그의 이름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직장에서는 한해치고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계절에는 대체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였어. 생산에 리용되는 원료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이었다. 하지만 황명원동무는 이 문제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깊은 사색과 탐구끝에 끝내 강추위속에서도 원료를 원상대로 보존하여 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사업에서는 손쉬운 세고 이악한 일꾼이지만 농업원들의 생활을 돌보아야 할 때는 인정많은 친형과도 같았다. 오빠같이 누누나 그에게 친한 친구를 리용하며 한집안 식구처럼 지낸다.

과연 무엇이 그의 가슴속에 그처럼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의 불길이 꺼질줄 모르고 타오르게 하는것인가.

황명원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5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사복무와 대학공부를 거쳐 오늘날은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직장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나깨나 당의 은혜에 보답하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본사기자 방성화

그는 평범한 란부였다

강원도중소관광관리국 통천관광 로동자였던 김정철동무는 그 어느 한곳에서도 만나볼수 있는 소박하고 고지식한 란부였다.

그의 이름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직장에서는 한해치고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계절에는 대체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였어. 생산에 리용되는 원료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이었다. 하지만 황명원동무는 이 문제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깊은 사색과 탐구끝에 끝내 강추위속에서도 원료를 원상대로 보존하여 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사업에서는 손쉬운 세고 이악한 일꾼이지만 농업원들의 생활을 돌보아야 할 때는 인정많은 친형과도 같았다. 오빠같이 누누나 그에게 친한 친구를 리용하며 한집안 식구처럼 지낸다.

과연 무엇이 그의 가슴속에 그처럼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의 불길이 꺼질줄 모르고 타오르게 하는것인가.

황명원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5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사복무와 대학공부를 거쳐 오늘날은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직장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나깨나 당의 은혜에 보답하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본사기자 방성화

그는 평범한 란부였다

강원도중소관광관리국 통천관광 로동자였던 김정철동무는 그 어느 한곳에서도 만나볼수 있는 소박하고 고지식한 란부였다.

그의 이름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직장에서는 한해치고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계절에는 대체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였어. 생산에 리용되는 원료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이었다. 하지만 황명원동무는 이 문제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깊은 사색과 탐구끝에 끝내 강추위속에서도 원료를 원상대로 보존하여 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사업에서는 손쉬운 세고 이악한 일꾼이지만 농업원들의 생활을 돌보아야 할 때는 인정많은 친형과도 같았다. 오빠같이 누누나 그에게 친한 친구를 리용하며 한집안 식구처럼 지낸다.

과연 무엇이 그의 가슴속에 그처럼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의 불길이 꺼질줄 모르고 타오르게 하는것인가.

황명원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5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손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사복무와 대학공부를 거쳐 오늘날은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직장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나깨나 당의 은혜에 보답하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본사기자 방성화

개척자의 남다른 긍지속에

세포동관건설 황해북도려단 수안군대 리순희동무는 물론 돌격대원들모두가 그의 진정을 알게 되었다.

소석회생산전투가 힘있게 진행되던 지난해 겨울이었다.

필요 대안에는 소석회생산에 관한 석회석을 저장없이 보장하여야 할 전투목적이 있었다.

순간도 잘못이 없지 않는데는 세한 눈사람과 무뎠지는 눈길을 헤치며 석회석운반전투를 벌리던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사람들도 힘에 부친 작업반에서 대대일꾼들은 리순희동무에게 쉬운 일감을 맡아 수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가 대대일꾼들도 모르게 석회석운반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는 알아본 대대일꾼들은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하면서 침침소 내려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세포동관건설전투장으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의 헌성이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무거운 석회석덩이를 또다시 등에 지고 운반

황명원동무가 순천제약공장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으로서 사업한것은 몇해전부터이다. 그동안 직장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수놓아왔다. 매해 계획을 이김없이 수행하였고 직장장의 면모를 안팎으로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켜왔다. 농업원들은 황명원동무를 우리 직장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기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합된 애국의 한결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순천제약공장에서 이스피린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황명원동무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바로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인 자기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여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 뭘겠소.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품소 다져나신 일터에서 이스피린

황명원동무가 순천제약공장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으로서 사업한것은 몇해전부터이다. 그동안 직장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수놓아왔다. 매해 계획을 이김없이 수행하였고 직장장의 면모를 안팎으로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켜왔다. 농업원들은 황명원동무를 우리 직장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기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합된 애국의 한결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순천제약공장에서 이스피린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황명원동무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바로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인 자기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여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 뭘겠소.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품소 다져나신 일터에서 이스피린

황명원동무가 순천제약공장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으로서 사업한것은 몇해전부터이다. 그동안 직장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수놓아왔다. 매해 계획을 이김없이 수행하였고 직장장의 면모를 안팎으로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켜왔다. 농업원들은 황명원동무를 우리 직장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기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합된 애국의 한결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순천제약공장에서 이스피린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황명원동무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바로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인 자기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여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 뭘겠소.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품소 다져나신 일터에서 이스피린

황명원동무가 순천제약공장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으로서 사업한것은 몇해전부터이다. 그동안 직장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수놓아왔다. 매해 계획을 이김없이 수행하였고 직장장의 면모를 안팎으로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켜왔다. 농업원들은 황명원동무를 우리 직장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기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합된 애국의 한결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순천제약공장에서 이스피린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황명원동무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바로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인 자기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여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 뭘겠소.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품소 다져나신 일터에서 이스피린

황명원동무가 순천제약공장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으로서 사업한것은 몇해전부터이다. 그동안 직장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수놓아왔다. 매해 계획을 이김없이 수행하였고 직장장의 면모를 안팎으로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켜왔다. 농업원들은 황명원동무를 우리 직장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기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합된 애국의 한결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순천제약공장에서 이스피린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황명원동무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바로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인 자기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여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 뭘겠소.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품소 다져나신 일터에서 이스피린

황명원동무가 순천제약공장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으로서 사업한것은 몇해전부터이다. 그동안 직장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수놓아왔다. 매해 계획을 이김없이 수행하였고 직장장의 면모를 안팎으로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켜왔다. 농업원들은 황명원동무를 우리 직장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기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합된 애국의 한결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순천제약공장에서 이스피린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황명원동무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바로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인 자기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여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 뭘겠소.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품소 다져나신 일터에서 이스피린

황명원동무가 순천제약공장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으로서 사업한것은 몇해전부터이다. 그동안 직장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수놓아왔다. 매해 계획을 이김없이 수행하였고 직장장의 면모를 안팎으로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켜왔다. 농업원들은 황명원동무를 우리 직장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기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합된 애국의 한결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순천제약공장에서 이스피린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황명원동무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바로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인 자기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여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 뭘겠소.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품소 다져나신 일터에서 이스피린

개척자의 남다른 긍지속에

세포동관건설 황해북도려단 수안군대 리순희동무는 물론 돌격대원들모두가 그의 진정을 알게 되었다.

소석회생산전투가 힘있게 진행되던 지난해 겨울이었다.

필요 대안에는 소석회생산에 관한 석회석을 저장없이 보장하여야 할 전투목적이 있었다.

순간도 잘못이 없지 않는데는 세한 눈사람과 무뎠지는 눈길을 헤치며 석회석운반전투를 벌리던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사람들도 힘에 부친 작업반에서 대대일꾼들은 리순희동무에게 쉬운 일감을 맡아 수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가 대대일꾼들도 모르게 석회석운반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는 알아본 대대일꾼들은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하면서 침침소 내려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세포동관건설전투장으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의 헌성이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무거운 석회석덩이를 또다시 등에 지고 운반

황명원동무가 순천제약공장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으로서 사업한것은 몇해전부터이다. 그동안 직장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수놓아왔다. 매해 계획을 이김없이 수행하였고 직장장의 면모를 안팎으로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켜왔다. 농업원들은 황명원동무를 우리 직장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기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합된 애국의 한결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순천제약공장에서 이스피린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황명원동무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바로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인 자기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여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 뭘겠소.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품소 다져나신 일터에서 이스피린

황명원동무가 순천제약공장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으로서 사업한것은 몇해전부터이다. 그동안 직장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수놓아왔다. 매해 계획을 이김없이 수행하였고 직장장의 면모를 안팎으로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켜왔다. 농업원들은 황명원동무를 우리 직장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기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합된 애국의 한결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순천제약공장에서 이스피린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황명원동무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바로 이스피린직장 직장장인 자기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여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 뭘겠소.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품소 다져나신 일터에서 이스피린

파쇼 폭압은 자멸의 길이다

외세의존에 환장한 매국노들의 추레

남조선에 파쇼폭압의 광풍이 스산하게 몰아치고 있다.

온갖 불법과 사기협잡으로 권력을 강탈한 피뢰당은 《유신》 독재의 폭압기구와 세계를 모조리 되살리고 그에 의거하여 진보민주, 통일운동세력들에 대한 탄압에 피눈이 되어 놓여져 있다. 그들이 휘둘러대는 파쇼의 몽둥이앞에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들고나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전면발살의 위기에 놓이고 14년동안 합법적인 로동조합으로 활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제해체의 운명에 처하였으며 전국공무원로조, 《자주민주》를 비롯한 진보적단체들과 언론들이 무참히 짓이겨져 있다. 지어 파쇼당국은 제 1야당인 민주당을 《중북》으로 몰아 박해하고 제 2야당인 통합진보당까지 강제해산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피뢰당은 《보안법》을 통한 권력적의 반인민적정체를 폭로해두는 대표적실례이다. 《유신》 독재시기 군사파쇼당국은 제 2야당인 《산화화》의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악착스럽게 짜내어 재벌들의 배를 불리워주었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아랑곳없이 오만과 독선으로 반역정체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파쇼폭압으로 뒤바친다는 현 피뢰당정권의 투기수립은 《유신》 독재통치의 전형이다.

《유신》 독재의 부활로 사회진반을 철저히 보수화하고 그 기반에서 저들의 매국반역정체를 마음대로 실시하는데 그 범목적적목이 있다.

피뢰보수세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경애의령》을 펴고, 《국민행복》이니 하면서 저들이 집권하면 근로인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것처럼 술한 공약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은 지금에 와서는 언제 그랬던가싶게 모든 것을 뒤집고 외면하고 있다. 피뢰당은 집권초기부터 사대굴종적이며 동족대결적인 매국반역정체를 실시하면서 경제와 인민생활을 파탄시키고 외세에게는 아부추종하며 북남관계를 전면파괴로 몰아갔다. 남조선 각계 계 위두르며 인민들에 대한 파쇼폭압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지금 남조선정권을 뒤튼들고있는 피뢰당보수의 선거개입사건과 내란음모사건, 불순한 목적이 드러난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 그에 따른 광란적인 《중북세력적결》 소동 등은 남조선사회가 파리의 《유신》 독재체제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15 통일선언은 물론 의신들까지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아만의 시대》가 들어갔다, 남조선은 《독재시대》로 이끌고 갔다. 《고 경애를 금지》하고 있다. 피뢰당은 집권 첫해에 벌써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 민주적발전을 가로막는 파쇼폭군, 극악한 대결정판자로서의 반역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자주, 민주, 통일은 남조선인민들의 세계적추원이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대결이 아니라 6.15 통일선언을 다시 이어갈수 있는 《정부》가 출현하여야 한다

《정부》가 출현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 것도 바로 그대문이다. 현 피뢰당정권은 정보원과 군부, 검찰,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과 보수언론들을 총발동하여 여론조작과 민심기만으로 집권한 철두철미 불법, 비법 《정권》이다. 총체적합법적정권으로서의 지난 《대통령》 선거의 부실근한 내막은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온갖 부정협잡으로 권력을 차지한 현 피뢰당은 집권하자마자 《유신》 독재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1인통치체제를 수립하고 《보안법》을 더욱더 사납게 위두르며 인민들에 대한 파쇼폭압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지금 남조선정권을 뒤튼들고있는 피뢰당보수의 선거개입사건과 내란음모사건, 불순한 목적이 드러난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 그에 따른 광란적인 《중북세력적결》 소동 등은 남조선사회가 파리의 《유신》 독재체제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15 통일선언은 물론 의신들까지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아만의 시대》가 들어갔다, 남조선은 《독재시대》로 이끌고 갔다. 《고 경애를 금지》하고 있다. 피뢰당은 집권 첫해에 벌써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 민주적발전을 가로막는 파쇼폭군, 극악한 대결정판자로서의 반역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파쇼폭압에 매달리는 독재정권은 폐쇄적이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남조선에서의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남조선의 력대 반역통치배들은 인민의 머리위에 군림하여 파쇼폭압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독재자들이었다. 그러나 폭군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야만적인 경찰통치로 악명을 떨치며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총칼로 탄압하였으며 《북진》 나팔을 미친듯이 불어대던 보수세대의 원조자였던 이승만역도는 4.19인민봉기의 의해 이역만리 태평양상의 섬에 쫓겨 고독하게 살다가 가련하게 죽었고 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반공화국대결정판에 매달리던 《유신》 독재자도 심복의 총탄에 맞아죽었다.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이 《정권》을 통치해 온 민주의와 정의를 철저히 배척하였다. 그 절규하는것은 유언치였다. 그야말로 악몽같은 《유신》 독재를 방불케 한다.

파쇼폭압은 독재정권의 고유한 통치수법으로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인민을 등진 반역정치는 반드시 파쇼폭압을 동반하는 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장히 유린하는 피뢰당의 야만적인 파쇼폭압만행은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의 부활로 사회진반을 철저히 보수화하고 그 기반에서 저들의 매국반역정체를 마음대로 실시하는데 그 범목적적목이 있다.

피뢰당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사대굴종적이며 동족대결적인 매국반역정체를 실시하면서 경제와 인민생활을 파탄시키고 외세에게는 아부추종하며 북남관계를 전면파괴로 몰아갔다. 남조선 각계 계 위두르며 인민들에 대한 파쇼폭압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지금 남조선정권을 뒤튼들고있는 피뢰당보수의 선거개입사건과 내란음모사건, 불순한 목적이 드러난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 그에 따른 광란적인 《중북세력적결》 소동 등은 남조선사회가 파리의 《유신》 독재체제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15 통일선언은 물론 의신들까지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아만의 시대》가 들어갔다, 남조선은 《독재시대》로 이끌고 갔다. 《고 경애를 금지》하고 있다. 피뢰당은 집권 첫해에 벌써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 민주적발전을 가로막는 파쇼폭군, 극악한 대결정판자로서의 반역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이 《정권》을 통치해 온 민주의와 정의를 철저히 배척하였다. 그 절규하는것은 유언치였다. 그야말로 악몽같은 《유신》 독재를 방불케 한다. 파쇼폭압은 독재정권의 고유한 통치수법으로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인민을 등진 반역정치는 반드시 파쇼폭압을 동반하는 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장히 유린하는 피뢰당의 야만적인 파쇼폭압만행은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의 부활로 사회진반을 철저히 보수화하고 그 기반에서 저들의 매국반역정체를 마음대로 실시하는데 그 범목적적목이 있다.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이 《정권》을 통치해 온 민주의와 정의를 철저히 배척하였다. 그 절규하는것은 유언치였다. 그야말로 악몽같은 《유신》 독재를 방불케 한다. 파쇼폭압은 독재정권의 고유한 통치수법으로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인민을 등진 반역정치는 반드시 파쇼폭압을 동반하는 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장히 유린하는 피뢰당의 야만적인 파쇼폭압만행은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의 부활로 사회진반을 철저히 보수화하고 그 기반에서 저들의 매국반역정체를 마음대로 실시하는데 그 범목적적목이 있다.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이 《정권》을 통치해 온 민주의와 정의를 철저히 배척하였다. 그 절규하는것은 유언치였다. 그야말로 악몽같은 《유신》 독재를 방불케 한다. 파쇼폭압은 독재정권의 고유한 통치수법으로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인민을 등진 반역정치는 반드시 파쇼폭압을 동반하는 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장히 유린하는 피뢰당의 야만적인 파쇼폭압만행은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의 부활로 사회진반을 철저히 보수화하고 그 기반에서 저들의 매국반역정체를 마음대로 실시하는데 그 범목적적목이 있다.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이 《정권》을 통치해 온 민주의와 정의를 철저히 배척하였다. 그 절규하는것은 유언치였다. 그야말로 악몽같은 《유신》 독재를 방불케 한다. 파쇼폭압은 독재정권의 고유한 통치수법으로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인민을 등진 반역정치는 반드시 파쇼폭압을 동반하는 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장히 유린하는 피뢰당의 야만적인 파쇼폭압만행은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의 부활로 사회진반을 철저히 보수화하고 그 기반에서 저들의 매국반역정체를 마음대로 실시하는데 그 범목적적목이 있다.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이 《정권》을 통치해 온 민주의와 정의를 철저히 배척하였다. 그 절규하는것은 유언치였다. 그야말로 악몽같은 《유신》 독재를 방불케 한다. 파쇼폭압은 독재정권의 고유한 통치수법으로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인민을 등진 반역정치는 반드시 파쇼폭압을 동반하는 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장히 유린하는 피뢰당의 야만적인 파쇼폭압만행은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의 부활로 사회진반을 철저히 보수화하고 그 기반에서 저들의 매국반역정체를 마음대로 실시하는데 그 범목적적목이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미국과 남조선피뢰당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정체를 점요하게 벌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4일을 규탄하는 보도 제 1053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유엔 총회 제68차회의 3위원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허위와 날조, 모략으로 가득찬 《북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피뢰당은 이번에도 또다시 《공통제안》으로 나서서 《북인권결의안》 조작에 앞장서 가담하였을뿐 아니라 결의안이 강압 《통과》되자 남반저 《환영》이니 뭐니 하면서 설레발을 쳤다.

한편 피뢰당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요, 미국무성 《인권특사》인 하는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속덕공문을 벌려놓았을뿐 아니라 그 무슨 《북인권보고》라는 스펙터를 만들어 국제기구들에 내들리는 등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더욱 미쳐달려고 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상을 깎아내리고 우리 사회주의체도를 혼들여보려는 또 하나의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의 구실로 써먹고있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특히 자주, 민주, 통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눈여겨 보아 가시처럼 여기면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피뢰당은 미국에 추종하여 인권문제를 동족대결, 체제대결의 불순한 목적에 리용해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려지고 있다.

미국과 결탁하여 우리 공화국의 찬란한 현실을 고의적으로 괴물화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있는 피뢰당의 추태는 만사람의 뺨소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과 피뢰보수세력의 반공

화국인권모략소동은 미국의 식민지, 최악의 민주와 인권폐해지대로 전락된 남조선의 진상을 감추고 반인민적악정으로 인한 피뢰보수의 심각한 위기와 민심의 불만을 탄대로 돌려보려는 가소로운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피뢰당보수와 반공화국인권모략단체들을 내몰아 우리 주민들을 백주에 3국에서 유인합치하여 강제로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반인민적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역적배당은 애당초 《인권》문제를 입박에 꺼낼 체면도 없다.

피뢰당의 반인민적정체는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저주로운 세상을 박차고 그러운 공화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날같이 폭로되었다. 지금 피뢰당은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우리 주민들의 일거수일동을 감시하면서 마구 잡아서 감옥에 갇혀넣는 등으로 그들의 불행길을 악랄하게 가로막고있으며 3국에서 우리 주재성원들을 합치하고 그들을 일직

로 합박전화까지 걸어오는 반인민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인권》문제의 피뢰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인권유린, 인신매매, 유인합치의 현 흉악이라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인권》문제의 피뢰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인권유린, 인신매매, 유인합치의 현 흉악이라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인권》문제의 피뢰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인권유린, 인신매매, 유인합치의 현 흉악이라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인권》문제의 피뢰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인권유린, 인신매매, 유인합치의 현 흉악이라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인권》문제의 피뢰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인권유린, 인신매매, 유인합치의 현 흉악이라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인권》문제의 피뢰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인권유린, 인신매매, 유인합치의 현 흉악이라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인권》문제의 피뢰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인권유린, 인신매매, 유인합치의 현 흉악이라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인권》문제의 피뢰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인권유린, 인신매매, 유인합치의 현 흉악이라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인권》문제의 피뢰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인권유린, 인신매매, 유인합치의 현 흉악이라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올바른 농업정책을 실시하라

서울에서 2만여명의 농민들 투쟁 전개

남조선의 전국농민총회편맹,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연대조직인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이 22일 서울시청앞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피뢰당국의 부당한 농업, 농민발살정책을 규탄하였다. 집회에는 남조선 전지역에서 모여온 2만여명의 농민들이 참

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발언자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은 어려운 속에서도 굳게 힘을 합쳐 농업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가는 농민단체들의 연대조직이라고 말하였다. 력사상 그 어떤 독재 《정권》도 농민들의 살림살이를 보살핀 경우가 없다고 단죄하였다. 파벌을 불려서 쌀시장개방의 중지와 올바른 농업정책의 실시 등은 위대한 농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조건들이라고 하면서 현 《정권》이 이를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농민들이 힘을 합쳐 농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

였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결의문은 박근혜 《정부》가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시위행진을 벌렸다. 《조선중앙통신》에 달하였다. 각계층 인민들은 이제는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을 도입해야 한다는것이 명백해졌다고 하면서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며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20차 정보원대선개입규탄총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박근혜가 왜 대통령인가.》 그 격분에 넘쳐 단죄하면서 파간한 투쟁으로 투쟁 도입을 실현할것을 선언하였다. 이들은 《저음 시국회의가 특검을 요구했을 때 정치권뿐 아니라 민중도 아야하게 여겼으나 이제 는 당연하다고 여겼고. 이제 《자식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수 없다.》고 하면서 현 정권이 대한민중정권을 주장하였다. 남조선종교인들도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책임을 집권

날로 더욱 확대되고있는 대중적투쟁의 불길

첫번째 사진은 서울광장에서 집권세력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사건을 반대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모습이다. 추운 날씨와 계속 내리는 비속에서도 이들은 선거개입사건을 규탄하면서 집권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울만이 아닌 남조선 곳곳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과 파쇼당정권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면서 민주주의 회복과 정보원개혁을 주장하며 매일과 같이 투쟁을 전개해나

고 있다. 참여연대와 학교비정규직로조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은 《민주주의의 확고한 참여연대 거리행진》, 《학교비정규직로조자 총결집대회》 등 다양한 형식의 투쟁을 벌리고 선거개입사건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투쟁현장마다에서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정보원대선개입사건진상 규명》, 《정보원해체》, 《박근혜정권사단》을 웨치면서 시 기세를 올리였다. 이들의 투쟁은 집권세력이 사건수사를 로물적으로 방해해나서는 등 끈질긴 진상은폐책동에 매달리고있는 것으로 하여 절정

에 달하였다. 각계층 인민들은 이제는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을 도입해야 한다는것이 명백해졌다고 하면서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며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20차 정보원대선개입규탄총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박근혜가 왜 대통령인가.》 그 격분에 넘쳐 단죄하면서 파간한 투쟁으로 투쟁 도입을 실현할것을 선언하였다. 이들은 《저음 시국회의가 특검을 요구했을 때 정치권뿐 아니라 민중도 아야하게 여겼으나 이제 는 당연하다고 여겼고. 이제 《자식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수 없다.》고 하면서 현 정권이 대한민중정권을 주장하였다. 남조선종교인들도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책임을 집권



자가 지고 사퇴하라고 하면서 투쟁에 함께해나갔고 있다. 눈이기는 투쟁모임에 대한 남조선인민의 강력한 요구앞에서 피뢰당정권은 골목은 병어리 마당 어쩔바를 몰라하고 있다. 이것은 각계의 진상규명을 무시하고 집권유지를 모면하기 위해 온갖 비법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 피뢰당에게 차찌는 응당한 대징이다. 한편 통합진보당과 전국교직원로동조합, 전국공무원로동조합에 대한 강제해산책동에 매여달리며 파쇼독재의 이빨을 드러낸 피뢰당에 항거하는 각계층의 투쟁도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두번째 사진은 피뢰당의 전보민주세력탄압 《유신》 독재부활책동으로 단죄하면서 밤길도둑 맞음을 지퍼올리고 투쟁의 새날을 맞이하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의지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보수세력의 강제해산기가 전개지 투항진보당 성원들은 사살식과 단식농성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고 전국교직원로동조합과 전국공무원로동조합도 단호히 항거해나섰다. 특히 이들의 투쟁에 대한 각계의 적극적인 지지가 높아지는 속에 많은

남조선피뢰들이 고질적인 외세의존의 악습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얼마전 피뢰당은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성 북인권특사라는자와 속덕공문을 벌려놓고 그 누구의 《인권》문제가 어찌나저찌니 하며 대결소동을 피웠다. 때를 같이하여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자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합장확인》이니, 《공감대》니 하면서 반공화국대결정판에 대한 주변나라의 지지를 구걸하였다. 실로 외세의 뒤바침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정치미수꾼의 가련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외세를 등에 업고서라도 골수에까지 들어찬 동족대결야망을 기어코 이루어보려고 날뛰는 피뢰당의 범목적정판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곁눈을 글썽하게 만든다.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우리를 헐뜯고 헤치기 위한 모략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은 이미 로망되었다. 피뢰들이 계책목은 반공화국모략살을 들고나다니 못해 외세에게 대결공조를 구걸하였다는것은 그들이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초보적인 현실감각마저 상실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지금 북남관계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원칙고수》의 간판에 북남대화를 대결에 악용한 피뢰들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마련되었던 판계개인의 분위기는 여지없이 파탄되었으며 북남사이의 대결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북침부장관과 극단적인 도발소동이 매일같이 감행되고있으며 그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리성이 있다면 마땅히 대결과 전쟁위기를 부채질하는 망동을 걷어치우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세에게 대결정판에 대한 공조나 구걸하고있는 피뢰들의 망동을 두고 과연 누가 온전한 처신이라고 하였는가. 그것도 피뢰당국은 저들이 떠벌이는 《신평화》 광고가 속에 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며 오직 우리를 해칠 불순한 대결기토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짱 드러내놓았다. 원래 외세의존은 민족의 버림을 받은 반역아

들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피뢰당은 집권한지 불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동족대결과 반공일정적, 반인민적악정을 강행한것으로 하여 안팎으로 두들겨맞고 있다. 피뢰당에 대한 온 겨레의 저주와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거기에도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도 선거협합행위를 비롯한 온갖 범법하는 인민들에 대한 파쇼독재만을 일삼는 피뢰당국에 대한 항거기운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 있다.

동네복신제가 된 피뢰당은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거둬고 외세의 지지를 얻어 살길을 열어보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법한 망동인가. 가스로운것은 외세의존으로 동족대결의 야망을 실현할수 있다고 타산하는 피뢰당의 저속한 사고방식이다. 피뢰들은 그 무슨 《공통합장확인》이니, 《공감대》니 하면서 외세로부터 배행여러나 받은 뜻이 우물쭈물인데 귀머거리 제 마음에 있는 소리 한다는 격이다. 미국상전이 상대해주었다고 하여 피뢰의 처지가 달라질것인가. 그런데도 외세의 눈도장한번에 으쓱해서 속을 뽐피우는줄도 모르고 《공감대》니 뭐니 하고 환곡을 뽐고 돌아치는 팔이야말로 사실 망신중에 세상 망신거리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똑똑한 정치철학도, 올바른 동족관도 없는 남조선피뢰당국의 필연적인 운명이다.

세정신이 없으면 외세에게 매여달리게 되고 사대와 외세의존을 일삼다가는 머저리가 되어 종당에는 제 운명도, 민족의 운명도 다 망치게 되는 것이다. 외세의존은 멸망의 길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을 추구한자들과 제법을 다 사하지 않았다. 피뢰들이 온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사코 외세의 공조에 매달려 동족대결의 길로 나아간단면 선인자들의 수치를 더욱 전철을 밝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은 정 철

남조선피뢰들이 고질적인 외세의존의 악습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얼마전 피뢰당은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성 북인권특사라는자와 속덕공문을 벌려놓고 그 누구의 《인권》문제가 어찌나저찌니 하며 대결소동을 피웠다. 때를 같이하여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자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합장확인》이니, 《공감대》니 하면서 반공화국대결정판에 대한 주변나라의 지지를 구걸하였다. 실로 외세의 뒤바침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정치미수꾼의 가련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외세를 등에 업고서라도 골수에까지 들어찬 동족대결야망을 기어코 이루어보려고 날뛰는 피뢰당의 범목적정판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곁눈을 글썽하게 만든다.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우리를 헐뜯고 헤치기 위한 모략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은 이미 로망되었다. 피뢰들이 계책목은 반공화국모략살을 들고나다니 못해 외세에게 대결공조를 구걸하였다는것은 그들이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초보적인 현실감각마저 상실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지금 북남관계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원칙고수》의 간판에 북남대화를 대결에 악용한 피뢰들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마련되었던 판계개인의 분위기는 여지없이 파탄되었으며 북남사이의 대결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북침부장관과 극단적인 도발소동이 매일같이 감행되고있으며 그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리성이 있다면 마땅히 대결과 전쟁위기를 부채질하는 망동을 걷어치우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세에게 대결정판에 대한 공조나 구걸하고있는 피뢰들의 망동을 두고 과연 누가 온전한 처신이라고 하였는가. 그것도 피뢰당국은 저들이 떠벌이는 《신평화》 광고가 속에 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며 오직 우리를 해칠 불순한 대결기토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짱 드러내놓았다. 원래 외세의존은 민족의 버림을 받은 반역아



남조선피뢰들이 고질적인 외세의존의 악습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얼마전 피뢰당은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성 북인권특사라는자와 속덕공문을 벌려놓고 그 누구의 《인권》문제가 어찌나저찌니 하며 대결소동을 피웠다. 때를 같이하여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자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합장확인》이니, 《공감대》니 하면서 반공화국대결정판에 대한 주변나라의 지지를 구걸하였다. 실로 외세의 뒤바침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정치미수꾼의 가련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파쇼암흑시대를 부활시키려는 박근혜

패당의 시대착오적인 폭거를 규탄한다

총련 일꾼들 담화 발표

본조전민주노동당 동맹 도교도 분서로 내걸어 진보적인 정당들을 마음대로 해산하고 사회를 파쇼화한 박정희의 통치방식 그대로 권력의 자리에 앉자마자 《용공적결》, 《중북세력적결》을 부르짖으며 남조선사회를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려는 속심을 로물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정대로 악몽의 시대가 되살아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파쇼폭압을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여 역사계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는 투쟁에 적극 합세해나갈것이라고 그들 강조하였다. 남조선에서 얼마전에 있는 피뢰당정권의 첫 《국회시정연설》에 대한 각계의 비난과 조소가 잦아들게 모른다. 가관은 집권자가 《북진》 공약실행을 위한 그 무슨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것을 《국회》에 제출했노라라 사실을 늘어놓는데 대해 《국회》의 원수 누구도 언제 그런일이 제출되었는지 들으니 처음이라며 아연해하였다. 야당은 이번에도 《또 하나의 거짓발목》이 배여져나갔다고 야유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제 는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먹듯 한 다는것이다. 집권자가 생애를 내리고 전례없이 《국회》에 나타나 연설을 한것과 같은것이 거짓말이라 하는것이 단종에 등장았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대통령》 선거때 신과적인 연거로 실상을 살살 흘려버려 놓았던 《기초생활보장법》이니 뭐니 하는 고부공인공약들이 거꾸로만 켜져나가는 바람에 1등거짓말이라고 딱인된 집권자가. 그 무슨 《북진》을 떠들면서 서민들의 주머

남조선에서 얼마전에 있는 피뢰당정권의 첫 《국회시정연설》에 대한 각계의 비난과 조소가 잦아들게 모른다. 가관은 집권자가 《북진》 공약실행을 위한 그 무슨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것을 《국회》에 제출했노라라 사실을 늘어놓는데 대해 《국회》의 원수 누구도 언제 그런일이 제출되었는지 들으니 처음이라며 아연해하였다. 야당은 이번에도 《또 하나의 거짓발목》이 배여져나갔다고 야유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제 는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먹듯 한 다는것이다. 집권자가 생애를 내리고 전례없이 《국회》에 나타나 연설을 한것과 같은것이 거짓말이라 하는것이 단종에 등장았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대통령》 선거때 신과적인 연거로 실상을 살살 흘려버려 놓았던 《기초생활보장법》이니 뭐니 하는 고부공인공약들이 거꾸로만 켜져나가는 바람에 1등거짓말이라고 딱인된 집권자가. 그 무슨 《북진》을 떠들면서 서민들의 주머

단행 될 미 잡힌 거짓말쟁이

남조선에서 얼마전에 있는 피뢰당정권의 첫 《국회시정연설》에 대한 각계의 비난과 조소가 잦아들게 모른다. 가관은 집권자가 《북진》 공약실행을 위한 그 무슨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것을 《국회》에 제출했노라라 사실을 늘어놓는데 대해 《국회》의 원수 누구도 언제 그런일이 제출되었는지 들으니 처음이라며 아연해하였다. 야당은 이번에도 《또 하나의 거짓발목》이 배여져나갔다고 야유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제 는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먹듯 한 다는것이다. 집권자가 생애를 내리고 전례없이 《국회》에 나타나 연설을 한것과 같은것이 거짓말이라 하는것이 단종에 등장았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대통령》 선거때 신과적인 연거로 실상을 살살 흘려버려 놓았던 《기초생활보장법》이니 뭐니 하는 고부공인공약들이 거꾸로만 켜져나가는 바람에 1등거짓말이라고 딱인된 집권자가. 그 무슨 《북진》을 떠들면서 서민들의 주머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부당성을 주장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13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체에 대한 탄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로조로력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언급하였다. 당국의 위법적인 《법외로조》 통보가 철회를 맞았다고 비난하였다. 《정부》가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기로 한 《로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투쟁에 나서면서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투쟁에 나서면서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성원들은 집권세력의 강제해산책동을 《유신》 독재부활책동으로 락인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호소하였으나 이것은 각계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19일에도 통합진보당은 강제해산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민주주의 12보대항패스》 창설식을 가지고 2월 6일까지 투쟁을 중심으로 순회투쟁을 벌여왔던 《정권》은 《유신》 독재부활책동을 낱알이 폭로되고 《정권회진》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기라고 선언하였다. 전국교직원로동조합과 전국공무원로동조합, 민주로총 등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집권세력이 《교직원, 공무원로조마녀사냥》에 나섰다고 단죄하면서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맞서 나갔음을 다짐하였다. 지난 15일 민주로총은 집회를 열고 《정부의 로조탄압을 지켜만 보고있지 않겠지》이며 독재의 칼날을 휘두르고 폭압을 일삼는 집권자를 겨냥한 투쟁을

벌릴것이라고 명명하였다.

벌릴것이라고 명명하였다. 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쇼적 망동에 격분하여 수많은 교원들과 공무원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도 투쟁에 걸기해나서 있었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과 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쇼폭압을 규탄하는 투쟁기운이 고조되는 속에 반인민적악정으로 초보적인 생전까지 무참히 짓밟힌 인민의 분노도 극도에 달하고 있다. 세번째 사진은 집권자의 공약파기농움을 단죄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피뢰당국의 모진 억압과 착취를 박차고 인간으로서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웨침이 하늘땅을 진강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5만명의 로동자들이 《민주파괴, 민생파탄의 주범 박근혜퇴진》에 나섰다고 단죄하면서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맞서 나갔음을 다짐하였다. 지난 15일 민주로총은 집회를 열고 《정부의 로조탄압을 지켜만 보고있지 않겠지》이며 독재의 칼날을 휘두르고 폭압을 일삼는 집권자를 겨냥한 투쟁을

남조선의 파쇼암흑시대를 부활시키려는 박근혜

패당의 시대착오적인 폭거를 규탄한다

남조선에서 얼마전에 있는 피뢰당정권의 첫 《국회시정연설》에 대한 각계의 비난과 조소가 잦아들게 모른다. 가관은 집권자가 《북진》 공약실행을 위한 그 무슨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것을 《국회》에 제출했노라라 사실을 늘어놓는데 대해 《국회》의 원수 누구도 언제 그런일이 제출되었는지 들으니 처음이라며 아연해하였다. 야당은 이번에도 《또 하나의 거짓발목》이 배여져나갔다고 야유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제 는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먹듯 한 다는것이다. 집권자가 생애를 내리고 전례없이 《국회》에 나타나 연설을 한것과 같은것이 거짓말이라 하는것이 단종에 등장았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대통령》 선거때 신과적인 연거로 실상을 살살 흘려버려 놓았던 《기초생활보장법》이니 뭐니 하는 고부공인공약들이 거꾸로만 켜져나가는 바람에 1등거짓말이라고 딱인된 집권자가. 그 무슨 《북진》을 떠들면서 서민들의 주머

단행 될 미 잡힌 거짓말쟁이

남조선에서 얼마전에 있는 피뢰당정권의 첫 《국회시정연설》에 대한 각계의 비난과 조소가 잦아들게 모른다. 가관은 집권자가 《북진》 공약실행을 위한 그 무슨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것을 《국회》에 제출했노라라 사실을 늘어놓는데 대해 《국회》의 원수 누구도 언제 그런일이 제출되었는지 들으니 처음이라며 아연해하였다. 야당은 이번에도 《또 하나의 거짓발목》이 배여져나갔다고 야유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제 는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먹듯 한 다는것이다. 집권자가 생애를 내리고 전례없이 《국회》에 나타나 연설을 한

《핵무기없는 세계》라령은 기만이다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평화롭고 풍요한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넘쳐왔다. 그 누구도 착취와 학살이 감행되고 재단이 그칠 줄 모르는 곳에서 살것을 바라지 않았다.

신화에서 나오는 에덴동산이야기를 놓고 보아도 그렇고 16세기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쓴 공상소설 《유토피아》의 내용을 보아도 인간이 바라는 세계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래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인류는 그러한 이상을 갖는 세계를 이 지구상에 아직까지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

오래된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전쟁과 총돌, 분쟁과 대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인류역사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수단인 바로 핵무기이다.

세계는 지난 세기부터 핵무기를 통한 침략과 위협, 핵군비경쟁과 핵대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게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너무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일단 사용되는 경우 수백수천년을 두고 겪어온 모든 재난을 다 합친것보다 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것이다.

하기에 오늘날에 와서 인류의 가장 큰 염두에 되고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핵무기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초미의 문제로, 인류가 갖고있는 최대의 현실적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매일같이 핵무기가 없는 세계건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여기에 제일 열이 올라 비명을 지누는 나라가 있다. 지역도 범도 없는 나라, 세계에 핵위협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미국이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떠들어대는 미국은 지구상에 핵무기와 핵위협을 산생시킨 장본인이다.

미국은 제일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유일하게 그것을 사용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전세계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핵무기없는 세계》라령을 일러프게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류의 이상에 대한 우용이다.

《핵무기없는 세계》건설구상이라는 기만적책변의 제창자는 오바마이다.

2009년 4월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열린 오바마는 《핵무기없는 세계》를 지향한 포괄적인 구상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는 이 구상을 내놓고는 마치도 자기 자신이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모범》을 보일것처럼 오술을 피웠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성원국 수뇌사회에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과 관련한 것의라령을 채택하게 하였으며 로씨야와 핵군축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흥내도 피웠다. 2010년 5월에는 자기들의 핵관두보유상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그럴듯 한 연극까지 들었다.

하지만 미국이 제창하는 《핵무기없는 세계》건설구상이라는 것의 기만성은 절대로 가려울 수 없다.

2010년에 작성된 미국의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에는 《핵무기없는 세계》가 달성될 때까지는 미국의 핵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밝혀져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핵무기를 없애 다음에야 자기들도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행정부는 국가 핵안전국의 핵무기관련활동에 70억 US\$가 넘는 거액을 지출할것을 예견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그 전 회계연도보다 6억 2400만 US\$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같은 해 3월 오바마는 핵무기를 축감하고 그 역할을 낮출것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의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억제력》을 유지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의 어느 한 민간 단체는 미행정부가 앞으로 25년간 600억 US\$를 들여 핵무기를 현대화하려 한다고 까뻐했다.

실지로 미국은 지금 《B-61》핵폭탄에 대한 현대화를 다그치고 있다. 전체 현대화한 현대화과정에 폭탄들이 더욱 개선되어 유도장치도 가질 수 있다. 2024년까지의 US-61 핵폭탄현대화계획에 81억 US\$가 지출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암암리에 혹은 공공연히 핵무기현대화에 막자를 가하고있는 사실은 해마다 계속되는 핵실험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한 이후의 행태만을 보자.

미국은 2010년 9월과 12월, 2011년 2월, 2012년 12월 등 여러차례에 걸친 립계전핵실험을 진행하였다. 올해에도 클루트니움을 리용한 핵무기능력검사시험을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국이 앞에서는 《핵무기없는 세계》로 뉘우 하면서도 뒤에서는 핵무기현대화책변에 팔방목으로 매어달리고있는것을 보여준다.

핵군축을 떠들며 그 연막속에서 계속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핵실험을 거듭하며 《립계전핵실험》의 외피속에서 핵실험을 계속하는것이 과연 핵무기없는 세계를 바라는 행동인가.

《핵무기없는 세계》라령을 침이 마르며 늘어놓는 미국의 속심이 무엇인가는 너무도 뻔드럽다.

저들만이 핵무기를 가지고있거나 그

것의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 하자는 것이다.

여러 핵보유국들의 출현으로 미국의 핵 독점은 이미전에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미국의 핵우세에 의한 세계경제책변을 견제하기 위해 대국들이 자기들의 핵무력 강화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악이 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선량해서가 아니며 승냥이가 송곳이를 갈겠다고 하여 풀을 뜯어먹으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핵무기없는 세계》라령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안이 남아있는 세계이며 그것은 핵으로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욕을 충족시키려는 망상속에 떠올린 나팔이다.

세계에는 왜 핵무기가 생겨났는가? 세계에는 왜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가?

국제사회는 미국에 이렇게 따져물고 있다.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류의 념원앞에서 미국은 감히 《핵무기없는 세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세계평화에 호적인 나라들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는 미국의 세계경제 야망을 꺾을 미국과 핵무기를 휘두르며 미쳐날뛰는 미국의 책동을 철저히 거부 서버려야 할 것이다.

리 철 혁

누워서 침뱉는 격의 궤변

어떤 범죄자들은 죄조를 받을 때 죄과를 약화시켜보려고 제3자를 걸고든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범죄책임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다.

과거의 성노예범죄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고있는 일본의 대부분정객들이 꾀대기 범죄자들처럼 늘어가고 있다.

얼마전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오사카시장이 《세계각국에도 전쟁시기 성문제 존재하였다.》라령을 내리니 하는 말방을 거러잡음이 늘어났다. 전쟁때마다 다른 나라 군대들도 성범죄행위를 저지르곤 하는데 무엇보다도 일본군성노예범죄라 성문 문지르시느냐 하는 취지의 나팔이다.

그의 기 궤변은 한편으로 과거에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였으며 그 엄중성 또한 크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정객들이 이처럼 량심과 도덕이 없이 치졸하고 어리석게 노는것은 그만큼 범죄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때문이다.

엄청난 전범죄를 안고있는 나라에서 정경노릇을 해먹으려면 그래도 범죄심리학자 국제법에 대해 초보적으로나마 알고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쟁에서 강행된 성범죄들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반인륜범죄행위들이다. 일본정객들은 민간인들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가해를 대항학살에 대한 죄로, 민간인들에 대한 노예화, 고문, 강제매춘 등은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개별적으로 강행된 전성범죄행위도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그 어느 나라 침략군이 강행한 성범죄보다 성격이 다르다.

과거 일본의 성노예범죄는 제도화되어있었다. 그 직접적조직자, 집행자는 과거 일본정부와 군부였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것은 중앙으로부터 말단행정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들을 장악하고 엄격히 감시통제하는 일체의 식민지군사과폭압체제를 떠나 절대로 실행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정객들은 적하면 성노예범죄행위에 정부가 어떤책임이 없느냐,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성노예 생활을 한것은 《자연적의사》에 따른것이냐라니, 《부모들이 딸들을 팔아먹었》기때문이라니 하는 모욕적이고 격분을 자아내는 소리들을 쫓고있다.

력사적사실은 변명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얼마전에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된 《BC군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문서는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어떻게 저질러졌는가를 똑똑히 립증해주었다. 문서에는 1944년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수십명의 내비틀란드 여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일본군정객들의 진술내용이 기록되어있다. 당시 범죄에 가담한 일본군정객들은 념성들의 성노예생활이 강제에 의한것이었다고 실토하였다.

수십명의 내비틀란드녀성들도 강제에 의해 성노예로 되었는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 대해 《자연적의사》라 뉘우 하는것은 전혀 리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모든 력사적사실과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엄중성을 놓고볼 때 일본정객들은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체면이 없으며 자국의 과거범죄행위에 대해 똑똑히 반성하고 배상해야 옳은 처사이다. 오사카시장을 비롯한 일본정객들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부인하는 말방을 마구 늘어놓는것은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 배상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뉘우의 행위이다.

일본의 과거죄악을 감추려 할수록 국제사회로 도악위가 쫓기는 과거범죄는 그 어떤 감언리설로 미화보실해도 감추지 못한다.

일본의 과거죄악을 감추려 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한 혐의와 규탄, 배격을 받게 될것이다. 부인하건대 정지인리관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아야 한다. 제 생각이나대로 가법계 망랑 아무 소리나 하면 회담에 가져올것이다.

오사카시장은 허튼 입질로 코만 뻐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리 경 수

이날 16세기부터 핵무기를 통한 침략과 위협, 핵군비경쟁과 핵대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게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너무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일단 사용되는 경우 수백수천년을 두고 겪어온 모든 재난을 다 합친것보다 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것이다.

하기에 오늘날에 와서 인류의 가장 큰 염두에 되고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핵무기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초미의 문제로, 인류가 갖고있는 최대의 현실적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매일같이 핵무기가 없는 세계건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여기에 제일 열이 올라 비명을 지누는 나라가 있다. 지역도 범도 없는 나라, 세계에 핵위협 of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미국이다.

2단계에서는 위협행위와 사 회적 및 민족간 총돌, 비상사 태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 채택하며 해당 계획 들을 현실의 실정에 맞게 수정 하게 된다.

2010년에 작성된 미국의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에는 《핵무기없는 세계》가 달성될 때까지는 미국의 핵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밝혀져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핵무기를 없애 다음에야 자기들도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행정부는 국가 핵안전국의 핵무기관련활동에 70억 US\$가 넘는 거액을 지출할것을 예견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그 전 회계연도보다 6억 2400만 US\$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같은 해 3월 오바마는 핵무기를 축감하고 그 역할을 낮출것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의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억제력》을 유지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의 어느 한 민간 단체는 미행정부가 앞으로 25년간 600억 US\$를 들여 핵무기를 현대화하려 한다고 까뻐했다.

실지로 미국은 지금 《B-61》핵폭탄에 대한 현대화를 다그치고 있다. 전체 현대화한 현대화과정에 폭탄들이 더욱 개선되어 유도장치도 가질 수 있다. 2024년까지의 US-61 핵폭탄현대화계획에 81억 US\$가 지출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암암리에 혹은 공공연히 핵무기현대화에 막자를 가하고있는 사실은 해마다 계속되는 핵실험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한 이후의 행태만을 보자.

미국은 2010년 9월과 12월, 2011년 2월, 2012년 12월 등 여러차례에 걸친 립계전핵실험을 진행하였다. 올해에도 클루트니움을 리용한 핵무기능력검사시험을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국이 앞에서는 《핵무기없는 세계》로 뉘우 하면서도 뒤에서는 핵무기현대화책변에 팔방목으로 매어달리고있는것을 보여준다.

핵군축을 떠들며 그 연막속에서 계속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핵실험을 거듭하며 《립계전핵실험》의 외피속에서 핵실험을 계속하는것이 과연 핵무기없는 세계를 바라는 행동인가.

《핵무기없는 세계》라령을 침이 마르며 늘어놓는 미국의 속심이 무엇인가는 너무도 뻔드럽다.

저들만이 핵무기를 가지고있거나 그

것의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 하자는 것이다.

여러 핵보유국들의 출현으로 미국의 핵 독점은 이미전에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미국의 핵우세에 의한 세계경제책변을 견제하기 위해 대국들이 자기들의 핵무력 강화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악이 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선량해서가 아니며 승냥이가 송곳이를 갈겠다고 하여 풀을 뜯어먹으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핵무기없는 세계》라령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안이 남아있는 세계이며 그것은 핵으로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욕을 충족시키려는 망상속에 떠올린 나팔이다.

세계에는 왜 핵무기가 생겨났는가? 세계에는 왜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가?

국제사회는 미국에 이렇게 따져물고 있다.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류의 념원앞에서 미국은 감히 《핵무기없는 세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세계평화에 호적인 나라들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는 미국의 세계경제 야망을 꺾을 미국과 핵무기를 휘두르며 미쳐날뛰는 미국의 책동을 철저히 거부 서버려야 할 것이다.

리 철 혁

어떤 범죄자들은 죄조를 받을 때 죄과를 약화시켜보려고 제3자를 걸고든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범죄책임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다.

과거의 성노예범죄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고있는 일본의 대부분정객들이 꾀대기 범죄자들처럼 늘어가고 있다.

얼마전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오사카시장이 《세계각국에도 전쟁시기 성문제 존재하였다.》라령을 내리니 하는 말방을 거러잡음이 늘어났다. 전쟁때마다 다른 나라 군대들도 성범죄행위를 저지르곤 하는데 무엇보다도 일본군성노예범죄라 성문 문지르시느냐 하는 취지의 나팔이다.

그의 기 궤변은 한편으로 과거에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였으며 그 엄중성 또한 크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정객들이 이처럼 량심과 도덕이 없이 치졸하고 어리석게 노는것은 그만큼 범죄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때문이다.

엄청난 전범죄를 안고있는 나라에서 정경노릇을 해먹으려면 그래도 범죄심리학자 국제법에 대해 초보적으로나마 알고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쟁에서 강행된 성범죄들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반인륜범죄행위들이다. 일본정객들은 민간인들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가해를 대항학살에 대한 죄로, 민간인들에 대한 노예화, 고문, 강제매춘 등은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개별적으로 강행된 전성범죄행위도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그 어느 나라 침략군이 강행한 성범죄보다 성격이 다르다.

과거 일본의 성노예범죄는 제도화되어있었다. 그 직접적조직자, 집행자는 과거 일본정부와 군부였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것은 중앙으로부터 말단행정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들을 장악하고 엄격히 감시통제하는 일체의 식민지군사과폭압체제를 떠나 절대로 실행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정객들은 적하면 성노예범죄행위에 정부가 어떤책임이 없느냐,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성노예 생활을 한것은 《자연적의사》에 따른것이냐라니, 《부모들이 딸들을 팔아먹었》기때문이라니 하는 모욕적이고 격분을 자아내는 소리들을 쫓고있다.

력사적사실은 변명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얼마전에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된 《BC군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문서는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어떻게 저질러졌는가를 똑똑히 립증해주었다. 문서에는 1944년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수십명의 내비틀란드 여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일본군정객들의 진술내용이 기록되어있다. 당시 범죄에 가담한 일본군정객들은 념성들의 성노예생활이 강제에 의한것이었다고 실토하였다.

수십명의 내비틀란드녀성들도 강제에 의해 성노예로 되었는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 대해 《자연적의사》라 뉘우 하는것은 전혀 리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모든 력사적사실과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엄중성을 놓고볼 때 일본정객들은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체면이 없으며 자국의 과거범죄행위에 대해 똑똑히 반성하고 배상해야 옳은 처사이다. 오사카시장을 비롯한 일본정객들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부인하는 말방을 마구 늘어놓는것은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 배상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뉘우의 행위이다.

일본의 과거죄악을 감추려 할수록 국제사회로 도악위가 쫓기는 과거범죄는 그 어떤 감언리설로 미화보실해도 감추지 못한다.

일본의 과거죄악을 감추려 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한 혐의와 규탄, 배격을 받게 될것이다. 부인하건대 정지인리관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아야 한다. 제 생각이나대로 가법계 망랑 아무 소리나 하면 회담에 가져올것이다.

오사카시장은 허튼 입질로 코만 뻐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리 경 수

나 라 의 사 회 안 전 구 상 비 준

로스악대통령 올라지미르 부 전이 최근 나라의 사회안전구상을 비준하였다.

이 구상은 2단계로 나누어 실현되는데 1단계는 2016년까지, 2단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1단계에서는 사회안전보장을 위한 법문건들과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 채택하며 해당 계획 들을 현실의 실정에 맞게 수정 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위협행위와 사 회적 및 민족간 총돌, 비상사 태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 채택하며 해당 계획 들을 현실의 실정에 맞게 수정 하게 된다.

2020년까지이다.

1단계에서는 사회안전보장을 위한 법문건들과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 채택하며 해당 계획 들을 현실의 실정에 맞게 수정 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위협행위와 사 회적 및 민족간 총돌, 비상사 태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 채택하며 해당 계획 들을 현실의 실정에 맞게 수정 하게 된다.

민족적대통합을 이룩할것을 호소

스리랑카대통령 마하나 라 사 파가 21일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민족적대통합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 도 배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란과 조화를 극복하는것이 민족앞에 나서는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후대들을 미래를 위해 민족이 단합을 반드시 이룩하여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적극 추 동해나갈때 대해 그는 강조하 였다.

민족앞에 나서는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후대들을 미래를 위해 민족이 단합을 반드시 이룩하여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적극 추 동해나갈때 대해 그는 강조하 였다.

후대들을 미래를 위해 민족이 단합을 반드시 이룩하여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적극 추 동해나갈때 대해 그는 강조하 였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위 성 발 사

중국에서 20일 《원전격락치위성-19》호를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4》호(형)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 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고 한다.

로스악에서 21일 23개의 소형위성을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들은 야스니우주발사장에서 《PC-20B》(《드네르》)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군사연습 개시

이란 동원군의 신속반응부대들이 20일 나라의 9개 주에서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적들의 있을수 있는 도발행위에 대처할수 있게 동원군의 전투력을 개선강화하 는데 있다.

군사연습은 현 이란군도발가 시 계속되게 된다 고 한다.

국 내 산 실험 무 기 들 공 개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위 성 발 사

중국에서 20일 《원전격락치위성-19》호를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4》호(형)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 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고 한다.

로스악에서 21일 23개의 소형위성을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들은 야스니우주발사장에서 《PC-20B》(《드네르》)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군사연습 개시

이란 동원군의 신속반응부대들이 20일 나라의 9개 주에서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적들의 있을수 있는 도발행위에 대처할수 있게 동원군의 전투력을 개선강화하 는데 있다.

군사연습은 현 이란군도발가 시 계속되게 된다 고 한다.

국 내 산 실험 무 기 들 공 개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위 성 발 사

중국에서 20일 《원전격락치위성-19》호를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4》호(형)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 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고 한다.

로스악에서 21일 23개의 소형위성을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들은 야스니우주발사장에서 《PC-20B》(《드네르》)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군사연습 개시

이란 동원군의 신속반응부대들이 20일 나라의 9개 주에서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적들의 있을수 있는 도발행위에 대처할수 있게 동원군의 전투력을 개선강화하 는데 있다.

군사연습은 현 이란군도발가 시 계속되게 된다 고 한다.

국 내 산 실험 무 기 들 공 개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제3차 아랍-아프리카수뇌자회의 진행

제3차 아랍-아프리카수뇌자 회의가 19일과 20일 쿠웨이트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70여개의 아랍 및 아프리카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정부대표들,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발전과 투자에서의 협력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

제3차 아랍-아프리카수뇌자 회의는 두 지역 나라들이 경제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여 빈곤을 청산하고 사회적안정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회의끝에 두 지역 나라들사이 의 동반자관계와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는 쿠웨이트선언이 채택되었다.

군사적공모 결락 강화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사일방위분야에서 공모결락을 강화하였다.

20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동으로 개발한 《메이비즈 슬링》 미사일방위체계에 대한 두번째 시험을 강행하였다.

이날 이스라엘남부에 있는 한 시험장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단거리탄도미사일목표를 요격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주변나라들의 커다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역적자 증대

일본에서 올해 10월에 상품 무역적자가 1조 907억엔에 달 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6.1% 더 늘어났으며 20일 이 나라 재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자주권침해책동을 강력히 규탄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제3차 아랍-아프리카수뇌자 회의에 20일 쿠웨이트에서 진행된 회의에 70여개의 아랍 및 아프리카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정부대표들,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발전과 투자에서의 협력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

자주권침해책동을 강력히 규탄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제3차 아랍-아프리카수뇌자 회의에 20일 쿠웨이트에서 진행된 회의에 70여개의 아랍 및 아프리카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정부대표들,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발전과 투자에서의 협력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

수 출 증 대

월남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 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대되었다.

19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인플레를 감소

남아프리카에서 10월에 인플레율이 9월의 6%로부터 5.5%로 감소되었다.

20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수 출 증 대

월남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 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대되었다.

19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인플레를 감소

남아프리카에서 10월에 인플레율이 9월의 6%로부터 5.5%로 감소되었다.

20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미 국 에서 무 인 기 공 습 을 반 대 하 여 집 회

미국에서 20일 《원전격락치위성-19》호를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4》호(형)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 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고 한다.

로스악에서 21일 23개의 소형위성을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들은 야스니우주발사장에서 《PC-20B》(《드네르》)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군사연습 개시

이란 동원군의 신속반응부대들이 20일 나라의 9개 주에서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적들의 있을수 있는 도발행위에 대처할수 있게 동원군의 전투력을 개선강화하 는데 있다.

군사연습은 현 이란군도발가 시 계속되게 된다 고 한다.

국 내 산 실험 무 기 들 공 개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미 국 에서 무 인 기 공 습 을 반 대 하 여 집 회

미국에서 20일 《원전격락치위성-19》호를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4》호(형)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 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고 한다.

로스악에서 21일 23개의 소형위성을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들은 야스니우주발사장에서 《PC-20B》(《드네르》)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군사연습 개시

이란 동원군의 신속반응부대들이 20일 나라의 9개 주에서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적들의 있을수 있는 도발행위에 대처할수 있게 동원군의 전투력을 개선강화하 는데 있다.

군사연습은 현 이란군도발가 시 계속되게 된다 고 한다.

국 내 산 실험 무 기 들 공 개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미 국 에서 무 인 기 공 습 을 반 대 하 여 집 회

미국에서 20일 《원전격락치위성-19》호를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4》호(형)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 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고 한다.

로스악에서 21일 23개의 소형위성을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들은 야스니우주발사장에서 《PC-20B》(《드네르》)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군사연습 개시

이란 동원군의 신속반응부대들이 20일 나라의 9개 주에서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적들의 있을수 있는 도발행위에 대처할수 있게 동원군의 전투력을 개선강화하 는데 있다.

군사연습은 현 이란군도발가 시 계속되게 된다 고 한다.

국 내 산 실험 무 기 들 공 개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미 국 에서 무 인 기 공 습 을 반 대 하 여 집 회

미국에서 20일 《원전격락치위성-19》호를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4》호(형)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 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고 한다.

로스악에서 21일 23개의 소형위성을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들은 야스니우주발사장에서 《PC-20B》(《드네르》)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군사연습 개시

이란 동원군의 신속반응부대들이 20일 나라의 9개 주에서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적들의 있을수 있는 도발행위에 대처할수 있게 동원군의 전투력을 개선강화하 는데 있다.

군사연습은 현 이란군도발가 시 계속되게 된다 고 한다.

국 내 산 실험 무 기 들 공 개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미 국 에서 무 인 기 공 습 을 반 대 하 여 집 회

미국에서 20일 《원전격락치위성-19》호를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4》호(형)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 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고 한다.

로스악에서 21일 23개의 소형위성을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들은 야스니우주발사장에서 《PC-20B》(《드네르》)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군사연습 개시

이란 동원군의 신속반응부대들이 20일 나라의 9개 주에서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적들의 있을수 있는 도발행위에 대처할수 있게 동원군의 전투력을 개선강화하 는데 있다.

군사연습은 현 이란군도발가 시 계속되게 된다 고 한다.

국 내 산 실험 무 기 들 공 개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미 국 에서 무 인 기 공 습 을 반 대 하 여 집 회

미국에서 20일 《원전격락치위성-19》호를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4》호(형)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 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고 한다.

로스악에서 21일 23개의 소형위성을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들은 야스니우주발사장에서 《PC-20B》(《드네르》)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군사연습 개시

이란 동원군의 신속반응부대들이 20일 나라의 9개 주에서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적들의 있을수 있는 도발행위에 대처할수 있게 동원군의 전투력을 개선강화하 는데 있다.

군사연습은 현 이란군도발가 시 계속되게 된다 고 한다.

국 내 산 실험 무 기 들 공 개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미 국 에서 무 인 기 공 습 을 반 대 하 여 집 회

미국에서 20일 《원전격락치위성-19》호를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4》호(형)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 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고 한다.

로스악에서 21일 23개의 소형위성을 쏘아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들은 야스니우주발사장에서 《PC-20B》(《드네르》)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군사연습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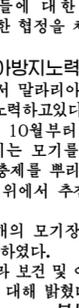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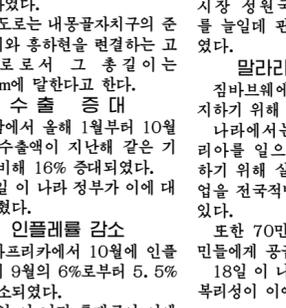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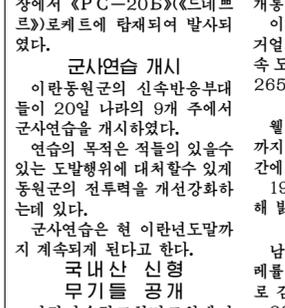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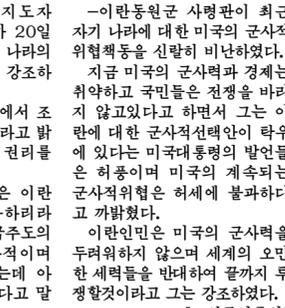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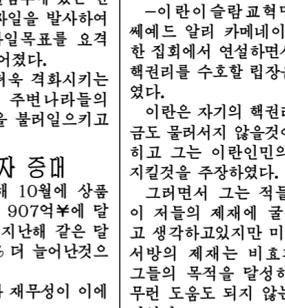
이란 동원군의 신속반응부대들이 20일 나라의 9개 주에서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적들의 있을수 있는 도발행위에 대처할수 있게 동원군의 전투력을 개선강화하 는데 있다.

군사연습은 현 이란군도발가 시 계속되게 된다 고 한다.

국 내 산 실험 무 기 들 공 개

이란이 울람공격명군위대가



오늘의 세계

최근 미국의 ABC방송이 피인인 인터뷰를 하여 말방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에 전 및 불을 어떻게 하면 감을 줄이 하는 물음에 6살 난 어린이가 《중국인들을 모두 죽이면 된다.》고 대답하는 인터뷰이다. 6살 난 아이의 대답이기는 너무나도 경악을 자아내는 반종교발언이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것은 사회자가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친 것이다. 이것은 가혹이나 편안치 않은 중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불초로 되었다.

중국인들 특히 미국에 사는 화교들속에서 ABC방송의 모욕적인 연설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며칠전에는 로스앤젤레스 시를 비롯한 7개 도시에서 수천명의 중국인 들이 참가한 시위가 미국을 뒤덮어놓았다.

한편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인종차별과 민족중요는 언론기관들의 사회적책임에 어긋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ABC방송은 다시는 중국인보유발언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 하였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갈수록 커